

FENDI CHAMELEON COLLECTION SERIES 30040 IS A REGISTERED MODEL

FENDI



Style

조선일보

DECEMBER 2013 vol.102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OMEGA

Ω
OMEGA
PRESENTS
Ladymatic
STARRING
NICOLE KID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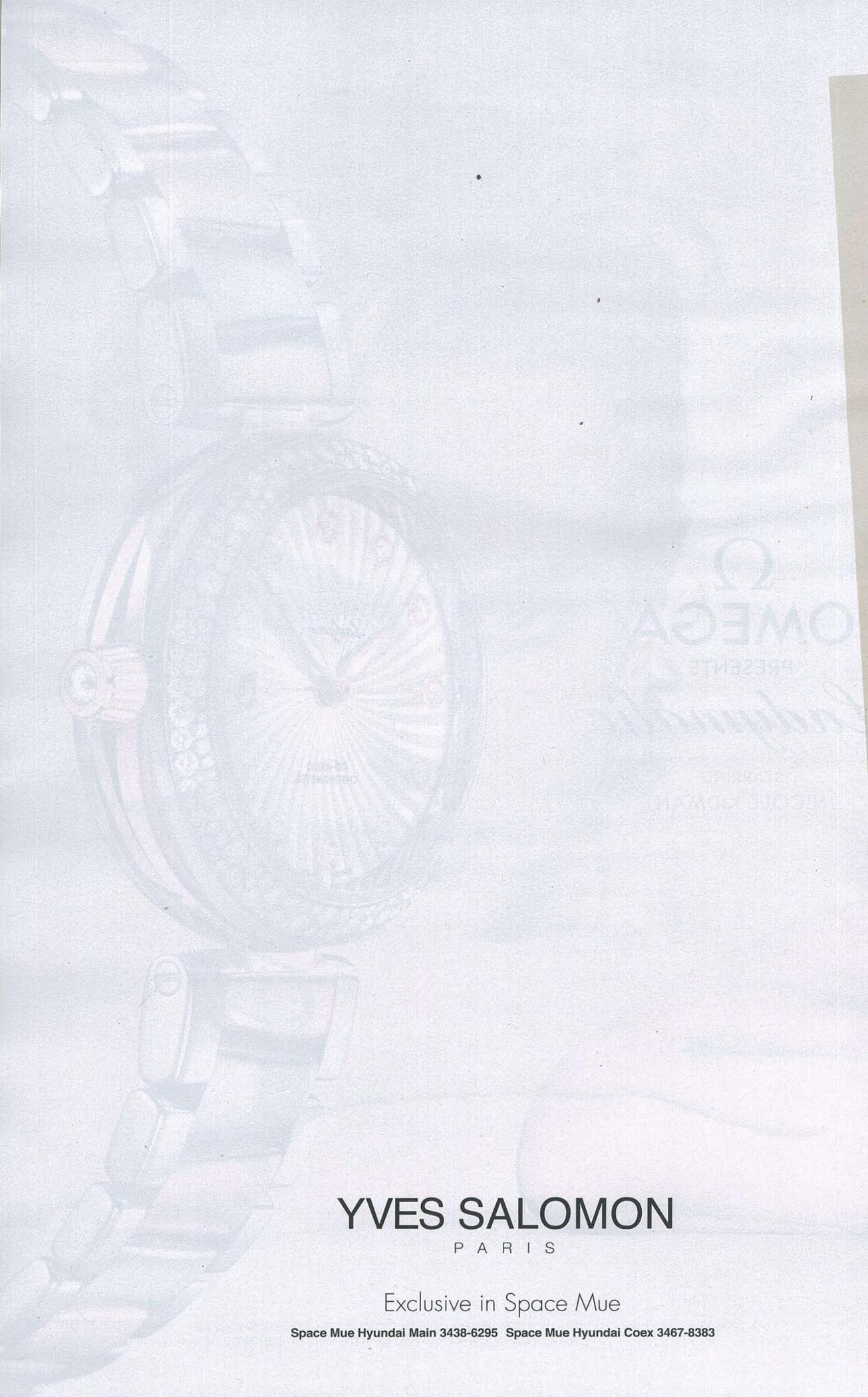




YVES SALOMON
PARIS

Exclusive in Space Mue

Space Mue Hyundai Main 3438-6295 Space Mue Hyundai Coex 3467-8383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1백76권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주얼리 하우스 티파니의 키 컬렉션이다. 전 세계 여성들을 설레게 하는 티파니 블루 박스의 하얀 리본은 오직 크리스마스에만 볼 수 있는 리본으로 보인다. 특히 티파니의 키 컬렉션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크리스마스 베스트 선물 아이템이 되기에 충분하다. 문의 02-547-9488



- 14 **MATALI CRASSET** 프랑스를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마탈리 크라세는 단지 디자인이나 실체물의 지평을 넓히는 데서 더 나아가 사고의 전까지 추구하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 16 **HAPPY HOLIDAYS** 진실한 마음과 달콤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특별한 선물이 되어줄 주얼리 컬렉션.
- 26 **ROMANTIC GIFTS** 진주로 빛어낸 유니크한 주얼리의 아름다움. 타사키의 로맨틱하고도 모던한 주얼리 컬렉션.
- 28 **WATCHES & WONDERS BEST 8** 지난 8월 아시아 최초로 홍콩에서 개최된 스위스 고급 시계 박람회 '워치스 & 원더스', 고급 워치 매출의 40% 이상이 창출되는 아시아 시장에서 선보일 주목할 만한 워치들을 꼽았다.
- 32 **CHERISH AND LOVE** 랄프 로렌이 유기견과 2013 F/W 액세서리 컬렉션으로 특별한 러웨이를 선보였다.
- 33 **CRYSTAL HOLIDAY** 마음껏 화려해져도 좋은 홀리데이 시즌. 대체로운 디자인과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찬 스와로브스키의 기프트 컬렉션이 당산을 기다리고 있다.
- 34 **GET IT SNEAKERS** 캐주얼 룩에도 남다른 마킹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멋진 남자들의 관심이 프리미엄 스니커즈 브랜드로 향하고 있다. 고급스러운 소재, 과감한 컬러 매치, 흔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산업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이 특별한 스니커즈에 지갑을 열 이유, 충분하지 않은가.
- 36 **CLASSY RIDER**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의 상당수가 말과 승마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승마의 역사에 그 근간을 두고 있는, 말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 아이템.
- 40 **GRACE IN MOTION** 보디라인을 타고 흐르는 여성스러운 실루엣과 고전적인 레디디라이크 룩, 구조적인 형태의 아우터. 내추럴한 아름다움이 사랑스러운 배우 김현주가 펼치는 우아한 순간.
- 48 **THE GLORIOUS JOURNEY** 하이 주얼리의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을 넘어 그 가치가 더해짐을 까르띠에 트래디션이 여실히 증명해준다. 보석에서 보물로, 까르띠에의 위대한 시간 여행.
- 49 **SWEET WINTER** 량방 컬렉션에서 2013 F/W 니트 웨어와 아우터, 스타일링에 방점을 찍어줄 액세서리를 제안한다.
- 50 **PERFECT PRESENT** 에스티 로더는 이번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세련되고 트렌디한 메이크업 세트와 우아하고 로맨틱한 향수 세트까지, 여성을 두흔들 매력적인 홀리데이 세트 컬렉션을 선보인다.
- 51 **OIL THERAPY** 각종 편견으로 사용하길 망설이고 있다면 메이크업 아티스트 1백 명이 추천하는 '클라란스 페이스 오일'에 주목할 것.
- 52 **ELEGANT CHARISMA** 자신만의 향기를 갖고 싶은가? 스스로를 전설로 만드는 남자 이병헌은 몽블랑 라전드 그 자체다.
- 54 **WHY SERUM?** 브랜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구의 결실이자 피부 고민의 해결사, 브랜드 대표 세럼을 소개한다.
- 55 **POWER LIFTING** 기본 좋은 승년 모임에서 나이 들었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피부 탄력에 총력을 기울여 노화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 그 해답은? 시세이도의 베스트셀러, 탕탱크림이다.
- 56 **SUPER SURPRISE!** 노트북 PC의 한글타이핑을 가능케 할, 작고 가벼운 마우스 상자와 같은 SSD의 매력에 탐구해본다.

Style 조선일보

Issue.102 December 2013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에디터 | 배미진 mj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메일 | yejin_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동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사법 그래픽스
 인쇄 | 타리타피에스 발행처 |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2·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리서치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CÉLINE



Jewel HIGH-COLORED

환상적인 컬러를 더하면 주얼이라는 영원한 우아함과 잊을 수 없는 시로 남는다.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옐로 다이아몬드를 키 컬렉션 원형 패턴의 3천만 원대, 인클루드 키 1천2백만 원대 모두 **타파니**, 자수성을 세련한 PO 트윈스트림 1백90만 원 **골드유**, 화려한 페라리 키 컬렉션 링 9백50만 원대, 네크리스 4백만 원대 모두 **타파니**, 하트 모티브 필라그리올트 패턴의 9백만 원대 **타파니**, 자수성 세팅 앙페르 컬렉션 네크리스 9백만 원대, 로즈 골드 에 링크 귀조를 세팅한 앙페르 컬렉션 이어링 4백만 원대 모두 **스타드**, 블루 투파조를 화려하게 세팅한 구르포 코포 컬렉션 링 1천만 원대 **에이치스틴**, 에디터 **베마인**

Fashion NEW & HOT STORES

차이유진 비람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은 이들의 자업을 활짝 열게 할 매장 오픈 소식이 로드숍과 백화점을 넘나들며 이어지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이들은 이들이 주목하는 가장 뜨거운 프리미엄 스니커즈 '골드 구스 디렉스 브랜드'가 한해백화점 본점에 단독 매장을 오픈했다. 아이코닉한 슈즈는 물론 가방, 액세서리, 의류 등 토탈 컬렉션을 선보여 그동안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나 멀티숍을 통해 대표 디자인만 만날 수 있었던 국내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기에 충분할 듯. 피케 셔츠와 담백한 스니커즈 등으로 두터운 가을이상을 보유했던 페리는 국내 최초 플라그십 스토어 '프레드 페리 서울'을 신사동 가로수길에 오픈했다. 메인 컬렉션을 비롯해 하이엔드 라인인 프리미엄 컬렉션, 다양한 캡슐 컬렉션 등 프레드 페리의 전 라인을 총망라했다. 영국 헤리티지를 공유하는 브랜드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는 비롯해 라프 시몬스와 협업한 칼라베리이선 제품도 이곳에서만 공개된다. 니뉴어게블 것. 가을 건너편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단독 편집 매장 4N5도 새 단장을 마쳤다.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지닌 쉐넬 페리 핸드백 컬렉션 매장에서 프리미엄 데님을 베이스로 한 블루핏 매장으로 이어지는 편리한 동선은 물론 다채로운 브랜드를 영연해 감각적인 토탈 코디네이션을 제공한다. 한편 패션과 뷰티,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멀티숍에 익숙한 이들은 창당동에 위치한 쉐넬페리 셀렉트 스토어 디누에로 향할 것. 스텝 모티브 캐시어어로 유명한 360슈퍼, 코펜하겐 출신의 완전 드레드 등 쉽게 볼 수 없는 해외 브랜드와 창의적인 국내 신규 디자이너 브랜드를 함께 소개하며 새로운 스타일에 목이른 이들의 감성을 해소하고 있다. 에디터 **이예진**



골드 구스 디렉스 브랜드, 4N5, 디누에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Drink 연말연시 분위기를 달구는 프리미엄 주류의 유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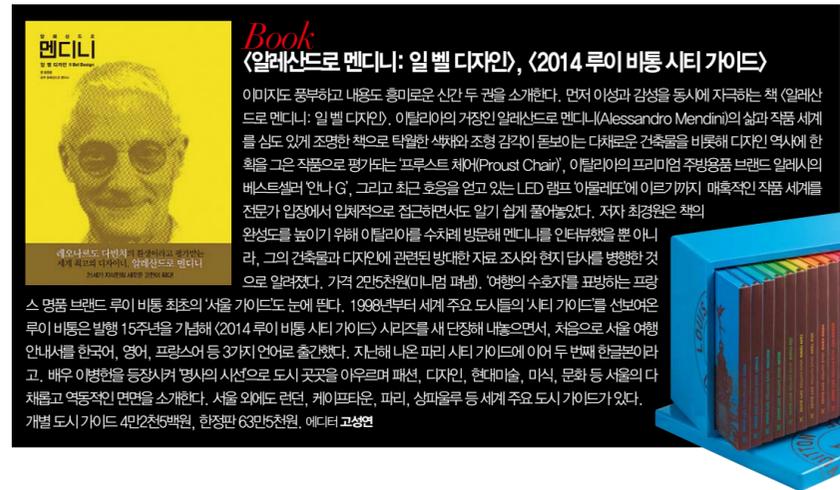
연말연시를 겨냥해 매혹적인 프리미엄 주류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순도 높은 화관함을 추구한다면 프리미엄 싱글 몰트위스키 브랜드인 더 글렌리벳이 새롭게 선보인 '니두라'를 주목할 만하다. 자연에서 숙성된 상태 그대로 오직 통에서 바로 병에 담은 위스키로, 냉각 여과 공법까지 과감히 생략하고 19세기의 전통 기법을 재현해 싱글 몰트 특유의 깊은 풍미가 제대로 묻어났다고. 알코올 도수 54.8%, 21만원(700ml). 글렌리벳 위스키의 대명사 발렌타인의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시리즈의 네 번째 제품인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도 흥미롭다.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은 2010년부터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데, 올해의 신작 글렌토커스 에디션은 은은한 시트러스 풍미에 부드럽고도 싱콤한 라즈베리와 건과류 향 등이 아우러진 것이 특징이다. 15만원(700ml). 발렌타인은 글렌토커스 문장을 기념해 12월 17일까지 이태원 레스토랑 그랑샤젤에서 퓨전 요리와 함께 스킵위스키를 더욱 창의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발렌타인 팝업 바를 진행한다. 현대미술계의 슈퍼스타 제프 쿤스와 손잡고 그야말로 유혹적인 작품 세계를 선보인 동 페리농의 한정판 제품은 시선을 강하게 잡아 끈다. 동 페리농 제프 쿤스 리미티드 에디션은 우아한 풍미를 머금은 동 페리농 2004와 생동감 넘치는 동 페리농 로제 빈티지 2003 등 27자로, 메탈 레이어들이 돋보이는 삼메인 병과 쿤스의 대표적인 상징인 발룬 비너스 이미지로 장식한 선물 상자에 담겨 나온다. 각각 1천 병과 60병씩 한정 판매한다(30만 원대). 발룬 비너스는 2008년부터 시작된 쿤스의 고대 유물 시리즈 중 하나로, 이를 근사하게 활용한 오브제인 동 페리농 발룬 비너스는 2천4백만 원(갤러리A 백화점 압구정점에서 단 3점만 판매). 에디터 **고성연**



발렌타인, 더 글렌리벳, 동 페리농

Book (알렉산드로 멘디니: 일 벨 디자인), (2014 루이비통 시티 가이드)

이미지도 풍부하고 내용도 흥미로운 신간 두 권을 소개한다. 먼저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자극하는 책 '알렉산드로 멘디니: 일 벨 디자인'. 이탈리아의 가장인 알렉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의 삶과 작품 세계를 심도 있게 조명한 책으로 탁월한 색채와 조형 감각이 돋보이는 다채로운 건축물을 비롯해 디자인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으로 평가되는 프루스트 체어(Proust Chair), 이탈리아의 프리미엄 주방용품 브랜드 알레시 베스트셀러 '안나 G', 그리고 최근 호응을 얻고 있는 LED 램프 '아를로'에 이르기까지 매혹적인 작품 세계를 전문가 입장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하면서도 알기 쉽게 풀어놓았다. 저자 최경원은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탈리아를 수차례 방문해 멘디니를 인터뷰했을 뿐 아니라, 그의 건축물과 디자인에 관련된 방대한 자료 조사와 현지 탐사를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2만5천 원(미.영 파셀), '여행의 수호자'를 표방하는 프랑 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최초의 '서울 가이드'도 눈에 띈다. 1938년부터 세계 주요 도시들의 '시티 가이드'를 선보여온 루이비통은 발행 15주년을 기념해 (2014 루이비통 시티 가이드) 시리즈를 새 단장해 내놓으면서, 처음으로 서울 여행 안내서를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등 3가지 언어로 출간했다. 지난해 나온 파리 시티 가이드에 이어 두 번째 한글본이라고. 배우 이병헌을 등장시켜 명사의 시선으로 도시 곳곳을 아우르며 패션, 디자인, 현대미술, 미식, 문화 등 서울의 다채롭고 역동적인 면면을 소개한다. 서울 외에도 런던, 케이프타운, 파리, 상파울루 등 세계 주요 도시 가이드가 있다. 개별 도시 가이드 4만2천5백 원, 한정판 63만5천 원. 에디터 **고성연**



LEGENDARY SCENTS

수년, 혹은 몇 세기에 걸쳐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전설의 향수가 있다.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향과 오랜 역사,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와 멋을 지닌 뷰티 브랜드의 스테디셀러 향수를 소개한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불가리아 블루 옴므**는 10년 넘게 국민 향수라고 불릴 만큼 큰 인기와 사랑을 받아온 불가리아의 대표 남성 향수. 차갑고 스파이시한 진저와 매혹적인 타바코 꽃, 무거운 느낌이 느껴지는 샌달우드, 머스크의 조합으로 유혹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향이 특징이다(50ml 8만7천 원). **에르메스 갈레슈**는 1961년 탄생한 최초의 에르메스 향수로, 브랜드의 상징인 '미자의 프랑수아' '갈레슈'라는 단어를 이름으로 부여했을 만큼 브랜드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은 향수다. 세련되고 우아한 여성을 상징하기 위해 장미, 아이리스, 민들레 등의 향을 조합해 섬세하고 관능적인 향을 완성했다(100ml 18만8천 원). **디올 자드로 로르**는 1999년 출시 이후, 골드 링을 장식한 기둥과 긴 보틀 디자인이 브랜드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았을 만큼 여러 번의 한정판으로 재해석해 선보이기도 한 브랜드의 대표 향수다(40ml 19만7천 원). 파우더리한 플로럴 계열 향의 **진조 플라워비이전즈**는 여성 향수 카테고리 중 가장 꾸준한 판매된 스테디셀러 향수로, 보물 안에 피어난 빨간 꽃 향수는 이제 브랜드의 상징이 되었다. 파우더리한 플로럴 향이 순수하면서 관능적인 여인을 표현해 어느 연령대에서나 인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50ml 9만6천 원). 1921년 탄생한 샤넬의 첫 번째 향수, **'샤넬 N°5'** 향수의 역사는 이 제품을 기점으로 해 전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여성 향수다. 일광일랑, 재스민, 5월의 장미 등의 풍부한 플로럴 향과 인공 향인 알데하이드를 결합해 우아하고 매혹적인 향취를 발산한다(50ml 12만8천 원). 에디터 **권유진**



섬세함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위한 안티에이징

그 아름다움의 디테일까지 살아납니다.

디올은 9년 동안의 연구 끝에, 섬세한 피부에 만족을 더해줄 수 있는 로즈 드 그랑빌 벵타를 탄생시켰습니다. 강하면서 동시에 부드러운 마법과도 같은 힘을 피부에 불어넣는 로즈 드 그랑빌 벵타는 크리스찬 디올의 정원 낭떠러지에서 피어난 한 장미꽃에서 기원하였습니다. 디올 만의 아주 특별한 프랑스의 가든에서 재배된 로즈 드 그랑빌은 일반 장미보다 더욱 강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타고난 강인한 생명력을 그대로 피부로 전하기 위해 까다로운 선정작업과 친환경공법을 거쳐 아주 귀하게 추출된 로즈 드 그랑빌 벵타는 피부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깨어나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 받은 것과 같은 느낌을 선사합니다. 바로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기분을 느껴보세요. 더 부드럽고, 더 탄탄하고, 더 빛나는 피부 - 디올 프레스티지로 나타날 그 섬세한 아름다움을 만나보세요.



빈티지 워싱턴 소가죽 소재가 멋스러운 볼링백. 36X24cm, 1백80만원대 프라다.

위트 있는 동물 모티브의 장지갑 89만원 펜디.

for her Selection

크리스마스과 연말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고 싶은가?
정열적인 레드와 사랑스러운 핑크 아이템만 있다면 충분하다.
photographed by kim do hyun

스타드 장식의 핑크 가죽 팔찌 10만원대 MCM.

레드 컬러의 스웨이드 앵클 부티 60만원대 토즈.

백패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한 핑크패 울트라 슬림 워치 가격 미정 불랑팡.

제트 패턴 핑크 가죽 미니어처 다이어리.

하트, 크리стал 등의 패턴을 장식이 매력적인 팔찌 각 2만원대 만도라.

매달린 핑크 스텔라로 핑크 미니어처.

투명한 핑크 테에 해골 프린트로 포인트를 준 선글라스 30만원대 수비 by 유티칼 W.

일찍 도착한 캔디 컬러의 크리스탈 아이젠 가격 미정 프라다.

빈티지 컬러 1백30만원대 루이비통.

리본 장식이 사랑스러운 7 링 99,5만원 홀라.

3스타일 유한정 에디터 최유진

핑크 비올라 컬러 장식이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한 핑크 레드 베이커.

부드러운 양가죽 장지갑 25만원 매종 에디터 최유진 by 코.

- 홀라 02-759-0687
- 코 02-548-4504
- 유티칼 W 02-6911-0845
- 프라다 02-3218-5331
- 펜디 02-3432-1854
- 토즈 02-3438-6008
- 불랑팡 02-3438-6268
- 만도라 02-6911-0790
- 더울 02-513-3232
- MCM 02-540-1404
- 루이비통 02-3432-1854
- 테드 베이커 02-310-5112
- 올체앤가바나 02-3444-0077
- 이세이 미야케 02-3438-6290

핑크 퍼 칼라로 포인트를 준 레드 코트 5백73만원 올체앤가바나.

© GRAFF DIAMONDS 2013



GRAFF

THE MOST FABULOUS JEWELS IN THE WORLD

THE SHILLA HOTEL +82 2 2256 6810

DISCOVER THE HAIR & JEWEL RECREATION AT WWW.GRAFFDIAMONDS.COM



오리엔탈풍의 이블 아이 프린트가 개성 있는 맨투맨 티 1백25만원 **겐조 울므**.

깊은 색채와 미세한 패턴을 더한 스타일링을 연출한 블루 컬러의 펜 1백만원 **디케이**.

송아지가죽에 아이 패턴을 더한 그린 컬러 플러시 29.5x21cm, 1백53만원 **지방시**.

깊은 색채와 미세한 패턴을 더한 스타일링을 연출한 블루 컬러의 펜 1백만원 **디케이**.

스타드 장식이 박힌 해골 모양의 초 11만5천원 V.D 초이스 by 비이커.

for him Selection

블루 & 그린 컬러로 산뜻한 화이트와 센스를 더한 스타일은 수많은 파티 인파 속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키 룩(key look)이 될 것.
photographed by hwang in woo

바다와의 오랜 인연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시아스타 플래닛 오션 워치 9백만원 **오메가**.

선명한 블루 컬러의 리본 장식이 돋보이는 크기가 미장미스타 **김by 분다삼엔**.

레인보 컬러 패턴의 헤드셋 14만8천원 **위에스씨**.

벨벳 보타이 21만원 **랑방 울므**.

딤 그린 컬러 벨벳 재킷, 패턴 머플러 각 2백25만원, 51만원 모두 **올체엔가바나**.

샤워실로 사용할 수 있는 에미터 **김유진**.

위트 있는 골퍼 모티브의 커피스 링크 21만원 **폴 스미스**.

젊은 네이비 컬러가 멋스러운 스웨이드 로퍼 70만원 **프리즈**.

따뜻한 지중해를 연상케 하는 플라타이 내입 티그 20만원 **프라이다**.

그린 컬러의 장미 패턴이 돋보이는 벨트 1백만원 **디케이**.

베이스킨 디자인의 송아지가죽 브리프케이스. 42x30cm, 5백만원 **루이 비통**.

- 지방시 02-517-7560
- 비이커 02-543-1270
- 오메가 02-511-5797
- 올체엔가바나 02-3444-0077
- 일렉산더 맥퀸 02-6905-3793
- 겐조 울므 02-2143-7251
- 올방울 02-3485-6627
- 분다삼엔 02-3444-3300
- 위에스씨 02-3444-1708
- 토즈 02-3438-6008
- 디케이 02-511-2366
- 랑방 울므 02-6905-3496
- 폴 스미스 02-3447-0278
- 루이 비통 02-3432-1854
- 프라이다 02-3218-5331

available at www.emporioarmaniwatches.co.kr AR1700

EMPORIO ARMANI





The Women Who Inspire Us *interview 03*

Matali Crasset

프랑스를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마탈리 크라세는 단지 디자인이나 설치물의 지평을 넓히는 데서 더 나아가 사고의 전환까지 촉구하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형태와 기능을 둘러싼 해묵은 명제들의 틀을 과감하게 부수고 언제나 의미 있는 변환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가지런히 깎은 앞머리에 귀 위로 올라오는 짧은 기장의 헤어스타일만큼이나 튀는 독특한 철학을 지녔다. 그래서 그녀에게 '편안함(comfort)'의 정의는 운신의 폭이 자유롭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일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녀의 소박한 삶이 녹아 있는 듯한, 더없이 소탈하고 따뜻한 미소는 반전의 매력이다.

책 한 권을 단 한 문장으로 풀어낸, 그러니까 마침표가 오로지 하나만 있는 소설 (임금 인상을 요청하기 위해 과장에게 접근하는 기술과 방법)(1968), 알파벳 e를 모조리 빼고 쓴 소설 <실종>(1970), 모음 중 e만 사용해 써 내려간 소설 <돌아오는 사람들>(1973), 20세기 후반 프랑스 문학계의 '천재 악동'으로 불린 조르주 페렉(Georges Perec, 1936~1982)은 전위 문학의 선봉장이었던 인물답게 길지 않은 삶이었지만 다분히 실험적인 작품 세계를 집약적으로 펼쳐냈다. 문학 평론가인 고려대학교 조재홍 교수는 최근 페렉이 몸담았던 전위 문학 단체 올리프(OuLiPo)를 다룬 책인 <잠재문화실험실>에 대한 서평에 제약을 실천하기, 문자를 해방하기, 삶을 번역하기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다. 재능과 삶을 동시에 보듬어나갈 줄 아는 그녀들에 대한 인터뷰 시리즈에서 굳이 조르주 페렉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번엔 등장하는 여성 크리에이터가 페렉이라는 기이하고도 걸출한 문호에 대해 필자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삶과 디자인 철학이 스스로를 박제하지 않고 끝없이 제약의 틀을 깬다는 점에서 페렉의 작품 세계와 많이 닮았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다. 파리지앵인 그녀의 이름은 마탈리 크라세(Matali Crasset). 5년 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전시회를 수차례 열었기에 아주 생소하지는 않은 프랑스의 디자이너다. 산업 디자인, 가구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아우르며 프랑스를 대표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한 그녀를 일컬어 '여자 필립 스타크'나 '제2의 필립 스타크'이라 부르기도 한다. 필립 스타크이 누구인가. 2000년대 중반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스타크 마우스(Starck Mouse)'라는 협력작을 내놓고 빌 게이츠와 찍은 '인종' 사진을 공개할 정도로 유명세가 엄청났던, 명실공히 20세기 최고의 스타 디자이너 아니던가. 그녀는 1990년대 필립 스타크를 위해 일한 적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 나란히 칭송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좋은 일일 것이다.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작품 세계를 보면 닮은 면모도 있지만 자세히 면면을 보자면 다르다. 그녀는 네 번 결혼할 만큼 사생활의 굴곡이 심한 데다 웬만한 영화배우 부럽지 않은 화려한 '셀럽' 스타일로 살아가는 스타와는 여러모로 사뭇 다른 DNA를 지닌 인물이 아닐 수 없다. 일단 그녀는 젊은 시절 자신의 사고 체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페렉이 어린 시절을 보낸 파리의 북동쪽 벨빌(Belleville)에 스튜디오를 차리고 참으로 소박한 삶을 꾸려나간다. 벨빌은 로망 가리의 인기 소설 <자기 앞의 생>에서 주인공 로자 할머니와 모모가 사는 동네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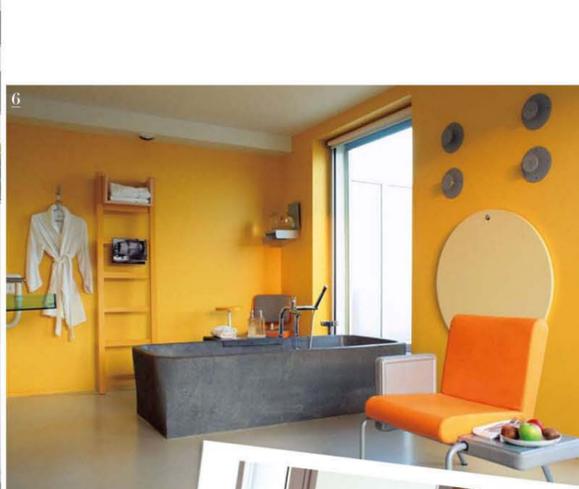
디자인도 삶도 '탈형식', 왜 스스로를 박제하는가

"이 동네는 중국인, 유대인 등 다인종이 어울려 사는 곳이에요. 저는 이처럼 작은 상징과 전통 시장이 있고, 가지각색의 사람들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을 좋아해요. 웨스트 파리(West Paris)처럼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파리에서 이웃 아이들과 한테 섞여 뒹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기도 하지요."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버섯 머리(?)'를 20년 가까이 고수하고 있는 마탈리 크라세를 마주한 곳은 다채로운 삶의 온기가 느껴지는 그녀의 동네 벨빌. 이 정감 어린 곳에 자리 잡은 3층짜리 로프트는 그녀의 일터이자 집이며, 한때는 아이들을 키우는 육아의 터전이기도 했던, '전천후' 보급자리다. 그녀에게는 10대 딸과 아

들이 한 명씩 있는데, 지금은 손이 덜 가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 로프트가 가족이 다 같이 어울리는 공간이었다. 알록달록한 색상의 소파 등 환상적이면서 도전적인 색채 감각으로 유명한 그녀의 창작 오브제들이 가득한 1층은 사무실이자 회의실, 식사를 하는 공간으로 쓰인다. 아이들이 놀자고 달려들면 방해물 받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벽으로 차단해놓지도 않았다. 사생활을 영위하는 2, 3층 공간이 따로 있긴 했지만 언제라도 '소통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만든 것이다. 가정이 휴식만 취하는 게 아니라 발상의 전환, 혁신과 실험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 다목적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또 한 명은 그녀의 남편이자 마탈리 크라세 프로덕션의 운영을 맡고 있는 프랑시스(Francis). 마탈리 크라세의 '수족과도' 같은 조수이다. 마탈리가 가끔 질문에 답하다 가물거물한 기억을 더듬을라치면 한쪽 벽에 붙어 있는 자신의 책상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던 프랑시스가 "그건 0000년의 일이야"라며 민첩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 이들은 화학 시절 동창생으로 만나 인연을 맺게 됐다고 한다. "20대 초반이니까, 무척 오래전 얘기지만 저는 처음에는 마케팅을 공부했어요(웃음). 학교에 다니면서 프랑시스를 만났는데, 둘 다 예술, 문화 등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됐고, 서로 책을 바꿔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학교 친구로 시작해 부부의 연을 맺고, 일까지 함께 영위하는 '솔 메이트' 같은 이들 커플에게는 '조수'라는 단어에 대한 거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프랑시스야말로 출중한 '알파우먼' 아내의 창조적인 재능과 커리어를 위해 아낌없이 조력하는 완벽한 '베타맨' 일지도 모르겠다.

세기의 디자이너 필립 스타크의 인연, 자신감과 실력을 다하다

우연히 향수를 기획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창조의 세계에 흠뻑 매료된 젊은 마탈리 크라세는 '크리에이터'로 진로를 바꿔 국립산업디자인대학(ENSCI-Paris)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1990년 졸업한 그녀는 밀라노에서 커리어의 첫 여정을 시작했다.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탈리아의 크리에이터 데니스 산타치아라(Denis Santachiara)의 스튜디오에 취직해 해외의 경험을 쌓다가 1993년 파리로 돌아와 필립 스타크를 위해 일하게 되었다. 당시 스타크는 프랑스의 간판 기업인 톰스 그룹의 가전 업체 톰스멀티미디어의 디자인을 맡고 있었는데, 마탈리 크라세는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자신감을 쌓아갔다. "밀라노에서는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했는데, 이와 달리 톰스의 일은 상당히 규모가 큰 상업적인 프로젝트가 많았죠. 그때 톰스는 필립 스타크와의 협력 체제 아래 디자인을 우선시하면서, 뒤달가 문화적인 혁명을 시도했어요. 필립은 제가 맡은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뿐 세세하게 관여하지는 않았어요." 당시 유럽의 가전 업체는 저마다 색다른 변모를 모색하고 있었다. 필립스가 이탈리아의 거장 알레산드로 멘디니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들인 것처럼, 톰스는 스타크를 통해 탈출구를 찾았다. <스타크(STARCK)>이라는 책을 펴낸 영국의 디자인 저널리스트 콘웨이 로이드 모건의 설명에 따르면 그 당시 제품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이력도 없는 스타크가 지명된 것 자체가 상당한 파격이었다고 한다. 필립 스타크는 '팀 톰'이라는 디자인 팀을 만들었



고, '스타일의 전복자'라는 별명에 걸맞게 톰스의 제품 전반에 과감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무채색이 대부분인 기존 제품과 대조적으로 톰팜으로 상지를 만들어 붙이고 형태를 잔 '집 내이저', 젊은이들을 위해 비스듬히 누워서도 시청할 수 있는 '게오 텔레비전' 등 당시로서는 참신한 디자인의 TV를 내놓는 등 톰팜 튀는 '물건들을 선보인 것이다. 스타크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겠지만 마탈리 크라세에게도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 제품의 혁신을 시도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처럼 젊고 의욕 넘치는 디자이너들이 적극 가담할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확실히 영양이 있는 자선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5년이 지나는 사이에 마탈리 크라세는 결국 톰스 프로젝트의 팀을 이끌게 됐고, 1998년 자신감을 갖고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열기에 이르렀다.

마탈리 크라세표 디자인의 경쾌한 자유로움

삶에 대한 그녀의 자세를 보면 놀랍지 않지만 우리네 삶을 규정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일종의 법칙을 거침없이 탈피하는 게 마탈리 크라세표 작품 세계다. 디자인과 순수 예술의 경계가 따로 없을 정도로 사정없이, 그렇지만 경쾌하게 '계약을 깨부순다. 마치 자신의 거주 공간에 일과 놀이의 경계가 따로 없는 것처럼 그녀가 맡은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면 마치 '설치 작품' 같다. 그만큼 자유롭고 유연하다.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걸고 스튜디오를 연 초기부터 다채로운 도전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명성이 확고한 무게를 실어준 작품으로는 소위 '부르크 호텔'의 역할 모델로 통하는 프랑스 니스의 '하이 호텔(HI Hotel)' 프로젝트(2003)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저마다 차별되는 9개의 콘셉트를 부여하고 아홉 가지 방식으로 '체류의 경험'을 맞출 수 있는 다차원적인 공간은 지금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 화사한 파스텔 색조의 방들, 음악, 미술, 이미지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진 호텔 곳곳의 공간에 그녀가 주입하려고 했던 기운은 호사스러움이 아니라 '편안한 자유로움'이었다. 그렇기에 값비싼 가구로 도배한 럭셔리 호텔과는 차별되는 하이 호텔의 개성이 더욱 돋보였을 것이다. 2010년에 완공한 '다르 하이(Dar HI)' 리조트는 마탈리 크라세의 내공과 자유로운 정신이 보다 더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반영된 작품이다. 튀니지의 사막 도시 네프타(Nefta)에 위치한 다르 하이는 '호텔'이라는 명칭이 어색할 만큼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이색적이고 실험적인 면면을 간직한 일종의 생체 휴식 공간 같은 곳이다. 그냥 '집(a house)'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치수들 사이로 이국적인 디자인의 몸체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범상치 않은 다르 하이는 자연환경은 물론 주민들과도 조화롭게 사나지를 빚어낸다. 실제로 인근 마을의 지역 주민들이 다르 하이의 청원사, 요리사 등으로 일하며 몸소 기존 채소와 과일을 리조트 고객들의 식탁에 올린다. '로컬 소싱'이 강조되는 요즘 F&B 업계의 추세와도 맞지만 뭔가 인위적인 폼수라고 볼 수는 없는 '진정성'이 살아 있다. 니스와 튀니지의 프로젝트를 발주했던 하이 라이프 그룹은 마탈리 크라세와 손잡고 파리에도 랜드마크를 설립했다. 2011년 문을 연 디자인 호텔 하이 매티(HI Matic)이다. 바스티유 광장과 가까운 이 호텔은 9호선 샤를루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데,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다. 방은 작지만 침대로도, 소

1, 2 마탈리 크라세 특유의 자유로움이 반영되면서 자연에 대한 사랑과 인간애가 느껴지는 튀니지의 리조트 다르 하이(Dar HI), 지역 주민들과 문화와 소통하는 듯한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이 돋보인다. 3 프랑스의 유명 갤러리 로댕(Galerie Rodac)에서 지난 여름에 가진 전시회에서 선보인 설치물. 펠트 소재의 가구와 바닥에 있는 선들의 조화가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낸다. Photo from Galerie Thaddaeus Ropac, Paris/Salzburg © Matali Crasset, Photo by: Philippe Servent 4, 6 마탈리 크라세에게 유명세를 안겨준 니스의 '하이 호텔(HI Hotel)', 화려한 분위기와 자유로운 개성이 두드러지는 부르크 호텔이다. 5, 7 '하이 시리즈'의 가장 최근작인 파리의 디자인 호텔 '하이 매티(HI Matic)', 작은 공간들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8 '하이 호텔'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 개념은 '하이 바커'다. 흉고고 때를 위한 분위기 공간, 조용하게 인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가족 단위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등 방문객의 수요에 따라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9 다문화적 색채가 인상적인 파리 북동쪽의 벨빌에 자리 잡은 스튜디오이자 작업실. 지난 10년 마탈리 크라세, 10 영국 가구 브랜드 이스타블리시드 & 소니스트(Established & Sons)의 손잡고 선보인 조명 '슈퍼 코너(Super Corner)', 투명한 원뿔이 겹친 흥미로운 모양새가 눈길을 끈다.

파로도 활용 가능한 매트리스와 함께 '익스텐션' 가능한 앙증맞은 탁자와 TV까지 '개입'할 수 있는 건 다 있다. '무인 시스템'을 표방하기에 로비에 체크인하고 체크아웃을 위한 컴퓨터가 설치돼 있으며 예약 번호를 입력하면 방 열쇠를 받을 수 있다.

진부하지 않은 진화의 끝은 어디일까

'하이 시리즈'를 합작한 하이 라이프 그룹의 공동 경영자 파트리크 엘루아르기(Patrick Elouarghi)와 필립 샤텔레(Philippe Châtelet)를 가리켜 마탈리 크라세는 '클라이언트(client)'가 아니라 '파트너(partner)'라고 부른다. 자기 복제를 염려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사업자가 한 명의 아티스트에게 세 번의 프로젝트를 맡긴 것은 무한한 신뢰와 존경이 균건히 버티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벌써 10년 지기도 훌쩍 넘긴 관계가 됐는데, 둘 다 흥미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향하는 가치가 비슷하기에 오랫동안 즐겁게 일해올 수 있던 것 같아요." 선인권을 강렬하고 흥미롭게 파괴하는 유일무이한 공간과 특별하면서도 온기가 스며들어 있는 인간적인 경험을 창출하는 것. 마탈리 크라세는 이러한 철학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그녀는 이탈리아 가구 업체 캄페지(Campeggi), 가펫 업체 노두스(Nodus) 등과 일하면서 테피스트리장인인 도모&페레(Domeau & Pérés)와 무려 15년이나 인연을 이어왔다. "생명과 안식을 가져오는 건 사람들이지요. 사람들은 나 자신이 꿈꾸는 것보다도 훨씬 더 평정한 걸 가져다주는 것 같아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비상하고자 하는 그녀의 실험적 의지가 과격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건 근본적으로 이 같은 인간에 대한 '동자애'와 더불어 의미 있는 혁신, 그리고 탄탄한 내공이 뒷받침된 완성도를 추구하는 자세 덕분일 것이다. 조르주 페렉이 단지 도전적인 실험만 일삼은 문학계의 이단아가 아니라 20세기를 대표하는 대가로 평가받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계약을 실천하기, 문자를 해방하기, 삶을 번역하기'라는 과제는 순수한 도전 의지와 숙련된 솜씨 없는 불가능할 테니 말이다. 이 글을 마치기 전에 마탈리 크라세가 '포우' 읽어보라고 추천한, 조르주 페렉의 역량을 집대성한 걸작으로 꼽히는 소설 <인생사용법>(7백 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다)을 아직 완독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분명 그녀의 작품들은 페렉의 세계와 통하는 '오라'가 있다. 특히 마탈리 크라세가 오랫동안 단독하게 협업을 진행해온 파리의 로댕 갤러리와 지난 여름 선보인 전시회에서 소개한 펠트 소재의 퍼니처와 설치물 등 '과파' 같지만 신비로운 풍류가 묻어나는 이 묘한 오브제들이 그 방증일 것이다. 그동안 자신의 전시회에서 시도하던 습관적인 방식과 동떨어진 요소를 펼쳐 보이며 했다는 그녀의 설명대로 이 전시 작품에는 크리에이터로서 끝없는 진화를 갈구하는 마탈리 크라세의 '창조혼'이 투영된 듯하다. **스타크** **마탈리 크라세** **인터뷰** **한지혜**



LUNA ROSSA
CHALLENGER OF THE 34th
AMERICA'S CUP



(위부터) 가운데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블랙 울트라 링 3백91만원, 가운데 줄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울트라 링 5백53만원, 카멜리아 아주르 목걸이 3백81만원, 카멜리아 아주르 링 3백29만원, 카멜리아 브레이슬릿 3백55만원 모두 **사설 확인 주얼리**.



(왼쪽부터) 레이디메틱 워치 2천만원대, 기계식 무브먼트의 자기장 문제를 해결한 기술 집약적 워치인 시미스드 아쿠아테라 15000가우스 7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위부터)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 1천2백만원대, 블랙 세라미크 화이트 골드 링 7백만원대, 다이아몬드를 세팅 펜던트 9백만원대, 모던한 이어링 4백만원대 모두 **클렉션 부세론**.



(위부터) 핑크 골드 비, 제로원 컬렉션 3밴드 링 2백만원대, 불가리 불가리 컬렉션 네크리스 5백만원대, 비, 제로원 세라미 링 각 1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왼쪽 위부터) 아틀라스 오픈 밴글 1천만원대, 아틀라스 다이아몬드 오픈 펜던트 4백만원대, 아틀라스 피어스트 커틀 링 각 90만원대, 크라운 키 펜던트 2백만원대 모두 **타파니**.

Happy Holi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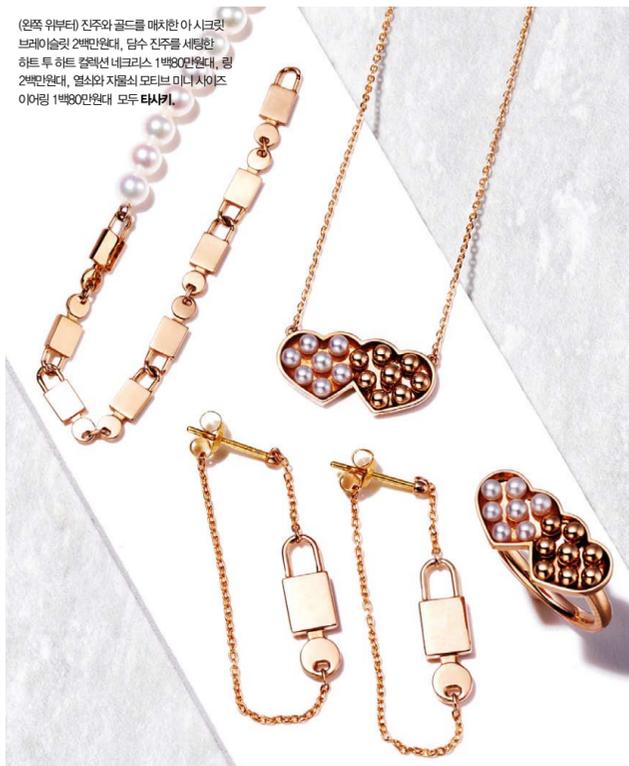
연말을 가장 로맨틱하게 만들 비밀스러운 열쇠는 바로 주얼리. 진실한 마음과 달콤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특별한 선물이 되어줄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듀얼 타임 레이디 워치 9백80만원, 남성용 막시미린 크로노미터 43mm 1천60만원 모두 **올라스 나르덴**.



(위부터) 베를리 브레이슬릿 3천5백만원대,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8백80만원대,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에디션 알함브라 펜던트 4백30만원, 왼쪽 펜던트 6백만원대, 오른쪽 펜던트 5백60만원 모두 **반클리프 아펠**.



(왼쪽 위부터) 진주와 골드를 매치한 아시릿 브레이슬릿 2백만원대, 담수 진주를 세팅한 하트 후 하트 컬렉션 네크리스 1백30만원대, 링 2백만원대, 열쇠와 자물쇠 모티브 미디사이즈 이어링 1백30만원대 모두 **타사키**.



(왼쪽부터) 심자 모티브 크로스 컬렉션 브레이슬릿 2백60만원대, 새장 모티브 나뭇잎 컬렉션 네크리스 5백30만원대, 러브 브레이슬릿 7백60만원대, 파리 누벨라그 컬렉션 링 7백40만원대 모두 **카르띠에**.



(왼쪽부터) 스틸 소재 카기 파우렛 워치 77만원, 무브먼트가 보이는 재즈마스터 오픈 하트 워치 1백16만원 모두 **해밀턴**.

가르띠에 1566-7277 타파니 02-547-9488 부세론 02-543-6523 반클리프 아펠 02-3440-5660 불가리 02-2056-0172 사설 확인 주얼리 02-3442-0962 타사키 02-3461-5558 올라스 나르덴 02-2192-9627 오메가 02-511-5797 해밀턴 02-3149-9593

광고모델: 이다비 베르디



PRADA



LUNA ROSSA
THE NEW FRAGRANCE FROM PRADA
PRADA.COM



시원할 유튜터에게 평양오리 매달 장식을 알라스트로 유나(8개 포함) 오렌지 컬러 벨트 70만 원대 에르메스 은은하게 반짝이는 크리스탈 장식의 블랙 컬러 벨트 27만 원대 스와로브스키 자바라 패턴 벨트 199만 원대 디디가 카운트를 할라미 도브라들 정장화한 브리 50만 원대



비바드한 주머니와 아름다운 자이스가 사랑스러운 미니 리키 백, 18X15cm, 각 2개(69만 원대), 2개(119만 원대) 모두 119만 원대



신바 걸리의 피아노 페니 슈즈 4만 20만 원, 블랙 페이퍼트와 송지의 조화가 럭셔리한 고가의 드로잉 슈즈 69만 5천 원 모두 113만 700원



리안 장신구 세트 요양의 자물쇠 장신구 귀아슬기 광학 30만 원대 모두 119만 원대



인테리어 체크 패턴이 돋보이는 플러시 모두 22X13cm 60만 원대 자카르타 비시 체크 펌프스 60만 원대 모두 120만 원대

Happy Holidays

특별한 선물에 아이같이 기뻐할 그녀를 생각하면 선물을 고르는 마음마저 즐겁다. 사랑스럽고 세련된 그녀를 만족시킬 홀리데이 선물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워터프루프 스패이드 소재의 블랙 애플 부츠 50만 원대 아시, 초단 애플과 스패이드가 표근한 브라운 애플 부츠 37만 8천 원 어드



부드러운 손이 닿아 줄 소재의 장갑 49만 원, 개성 있는 패턴과 컬러가 돋보이는 머틀러 각 34만 8천 원 모두 119만 원대



우아한 코튼 핏의 울 울방 리아 코드 29만 원 루베이지



스몰라이프 패턴의 에르메스 레드 클라지 34.5X22.5cm, 8만 5천 원 가방, 들스카우트로 만든 에르메스 장리의 클라지, 30X17cm, 73만 8천 원 일 비중대



군데에 기 없는 비어 캐주얼, 콘서트한 디자인의 퍼스트 레디 보스텐 백, 30X22cm, 60만 원대 MCM

에르메스 02-544-7722 스와로브스키 1661-9060 렌디 02-2056-9023 힐프 로렌 02-8004-0133 로조 02-3479-6030 비바리 02-3435-6538 프라다 02-3218-5341 아쉬 070-8783-8686 어그 02-3445-7712 비바인 웨스트우드 02-3413-1713 힐방 02-3433-6250 일 비중대 02-545-4992 MCM 02-540-1404 루베이지 02-3438-6212

스타일리스트 유영영 에디터 권영



SWAROVSKI
moments to give

Miranda Kerr

그레이 덕 디온 충전제로 따뜻한 추위를 막아줄 패딩 점퍼, 브랜드 로고 장식과 레드 & 화이트 컬러 대비가 감각적이다. 1백18만원 무스나클.



브라운 악어가죽 아이패드 케이스 63만5천원, 옐로, 블루 컬러 아이폰 케이스 각 55만원 모두 구피.



장갑 안쪽에 모피를 덧대 보온성을 강조한 가죽 장갑 각 78만원 모두 키톤.



심플한 타이 핀 17만원, 유틘가느까는 자동차모형 케이스 링크와 로고를 새긴 사각 케이스 링크 각 23만원 모두 폴스미스.



세련된 아웃도어 룩을 완성하는 트레킹 슈즈 각 30만원대 모두 예코.

Happy Holidays

자신의 취향과 스타일을 고려한 패션 아이템이라면 선물의 기쁨이 배가되지 않을까. 매년 겨울이면 당신을 떠올리게 할 감각적인 남성용 선물.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고급스러운 패턴과 컬러 덕분에 어떤 셔츠에 매치하든 멋스럽게 어울리는 8cm 실크 타이 20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네이버 컬러 팀 슈즈 65만원 **휴고 보스**, 베이시한 디자인의 브리프케이스 40x30cm, 54만8천원 **헝스아이트**.



블랙 페도라 가격 미정 **테드 베이커**, 체크 패턴 캐시미어 머플러 각 43만원 모두 **버버리**, 풍성한 머플러 70만원대 **루이 비통**.



자적인 인상을 주는 매끈한 프레임의 안경 각 46만원 모두 **폴스미스 아이웨어**.



잔잔한 체크 패턴 셔츠와 부드러운 광택이 도는 고급스러운 실크 타이 각 51만원, 24만원 모두 **에르메스**도 **제너**.



테드 베이커 02-310-1556 **버버리** 02-3485-6536 **루이 비통** 02-3432-1854 **구피** 1577-1921 **키톤** 02-6905-3787 **폴스미스** 02-3447-0278 **에르메스** 02-5444-7722 **휴고 보스** 02-515-4088 **헝스아이트** 02-514-9006 **에르메스**도 **제너** 02-511-0285 **무스나클** 02-514-9006 **예코** 031-6282-4800 **폴스미스 아이웨어** 02-501-4436

스타일링: 유영정 에디터: 이예진



Paul Smith
SPECTAC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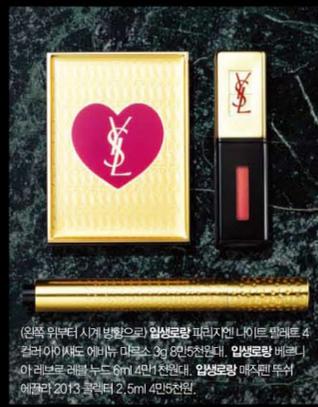
WWW.PAULSMITH.CO.UK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7월 에리 하이즈 홀리데이 컬렉션 유폴라 헤어 크림 50ml 3만9천원, 슈에무라 6-FRINOCESS 녹차 모란기 클렌징 오일 450ml 9만8천원, 비오렐 워터 라베르스 아쿠아슈러스 마스크 오일 125ml 6만8천원, SK-II 페이스 트리트먼트 에센스 리미티드 에디션 215ml 19만원



디퓨즈 2013 홀리데이 리미티드 캔들 컬렉션 모두 70g 5만8천원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입성로랑 페리자엔 나이트 블루베리 4 컬러 아이 셰도 에비뉴 디팩스 3g 8만5천원, 입성로랑 베르니 아리브로 레파누드 6ml 4만1천원, 입성로랑 마스크 투쉬 에글라 2013 홀리데이 2.5ml 4만5천원



(왼쪽부터 차례대로) 입성로랑 유스 리퍼유어 리프팅 세럼 파운데이션 30ml 8만4천원, 풀리민스 스킨 인텐싱 파운데이션 30ml 5만5천원, 시세이도 슈어 앤 페퍼드 파운데이션 30ml 6만2천원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옴브르 마블리베 드 샤넬 차임 6만8천원, 콜레트르 보베 인텐드 워터 기드 콜렉션 슈플로워 22만원, 랑콤 이브리즈 퍼펙트 2.7g 7만5천원

Happy Holidays

오직 12월 한 달간 만날 수 있는 뷰티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부터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크림과 우아한 향수 컬렉션까지, 올 연말 여자들의 화장품 위시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클리앙스 엑스트라 펩팅 나이트 크림 50ml 11만원, 아모레퍼시픽 타임 리스모스 스킨 리뉴얼 크림 50ml 48만원, 루시앙 아모르벨 디바인 크림 50ml 15만원, 디올 라 크렘 수브렐 50ml 42만8천원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랑콤 노엘 컬렉션 알슬리프즈 4.2ml 6만원, 샤넬 루주 일루르 3.5g 3만9천원, 디올 디오리퍼 컬렉션 광드 우터 워터 3.5g 4만5천원, 랑콤 루즈 오프에디트 3.5g 4만5천원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겐조 콜리르 겐조 핑크 오드 퍼퓸 & 겐조 파우치 50ml 8만9천원, 콜로에 루즈 드 콜로에 오드 투앙 50ml 9만3천원, 볼가타 오드 나이 크리시탈린 오드 퍼퓸 40ml 16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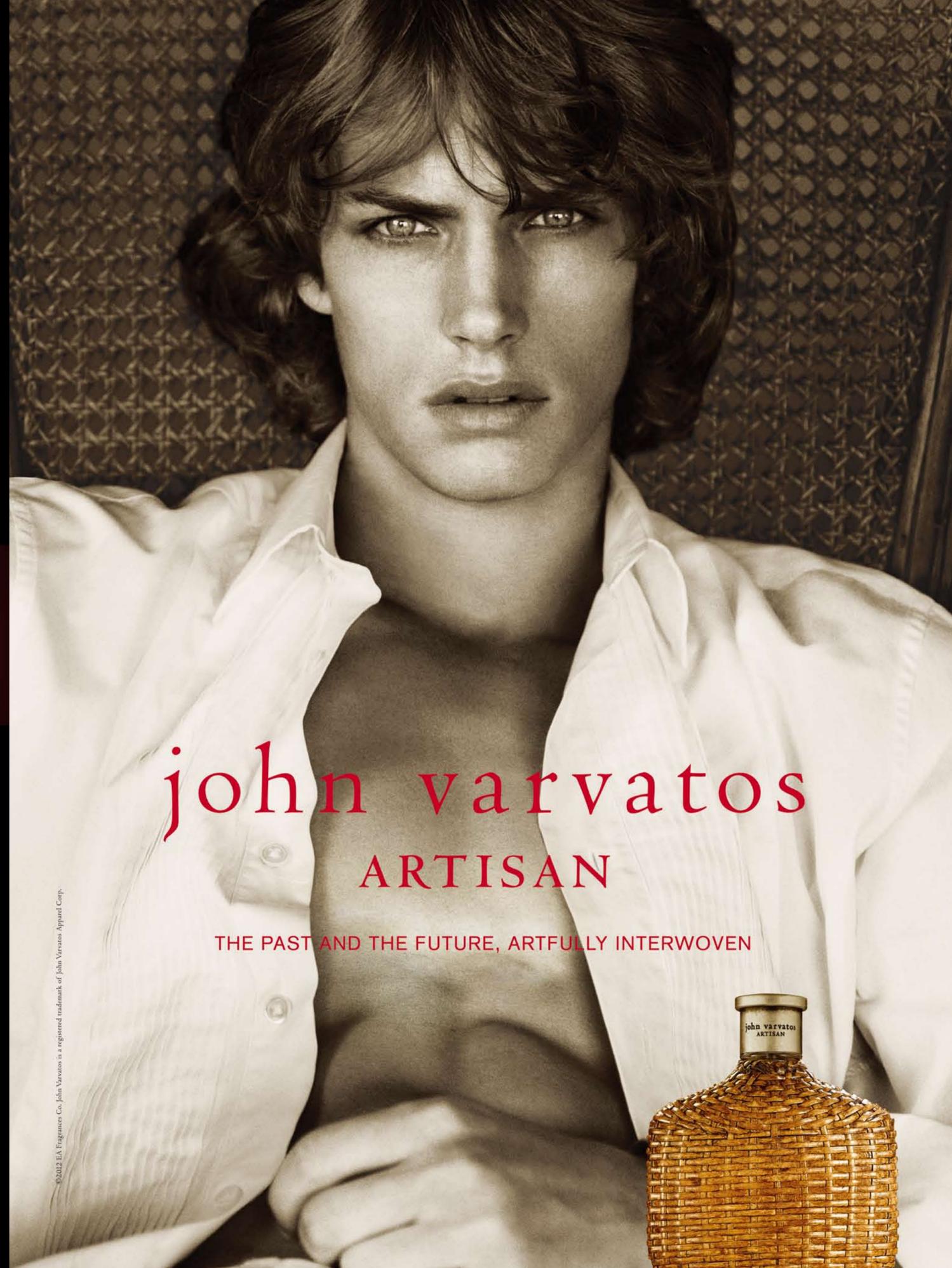


(위부터) 디올 홀리데이 구렛은 컬렉션 립 & 내일 팔레트 8만2천원, 맥스 코르 오브 미드나잇 아이 립 백 8만원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페리비 스쿠데리아 클림 오드 투앙트 40ml 5만9천원, 프리다 쿠니니사 위스트림 오리 투앙트 50ml 9만2천원, 랑콤 레전드 오드 투앙트 50ml 8만원

SK-II 080-023-3333 7월, 랑콤 슈에무라 비오렐 080-022-3332 디올 02-3438-9537 맥 02-3440-2645 시세이도 080-564-7700 클리앙스 080-542-9052 입성로랑 080-347-0089 샤넬 080-332-2700 겐조 02-3438-9627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 콜레트르 보베 02-3438-6032 겐조 080-344-9500 볼가타 080-990-8889 콜로에 02-6824-6071 디퓨즈 02-514-5167 루시앙 02-3014-2950 페리비, 프리다 080-363-5454 랑콤 080-800-8809



john varvatos ARTISAN

THE PAST AND THE FUTURE, ARTFULLY INTERWOVEN



©2012 EA Fragrances Co. John Varvatos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John Varvatos Apparel Corp.

12월 리미티드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솔라 패턴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2인용 크리스마스 디너 플레이트. 다양한 컬러와 패턴으로 산보어 크리스마스 파티를 앞두고 특별한 테이블 세팅을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20만원대 **취슬러**.



모던한 컬러 배색이 돋보이는 골프화 35만원 **꽃조이**. 흰색 골프공 세트 5만5천원, 옐로 골프공 세트 8만원 모두 **타이틀리스트**.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콤팩트한 크기의 가벼운 무게로 DSLR은 무겁다는 편견을 보기 꺼뜨린 EOS 100D 8만8천원 **캐논**.



모던한 형태와 고급스러운 가죽, 세련된 컬러가 돋보이는 프리미엄 헤드폰 베오 플레이 H6. 균형 잡힌 풍부한 사운드와 편안한 착용감 역시 매력적이다. 68만원 **뱅앤올룹슨**.



(왼쪽부터) 스코틀랜드 글렌리벳스 증류소의 울트라 김조한 발렌타인 17 글렌리벳스 에디션 15만원 **발렌타인**. 19세기 전통 7법을 그대로 재현한 싱글 몰트 위스키 나두라 21만원 **더 글렌리벳**.

Happy Holidays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줄 플레이트와 지금 당장 갖고 싶은 최신 테크 아이템, 프리미엄 헤드폰 등 나이와 성별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기프트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완벽한 클리닝을 돕는 진동 클리너 비자퓨어 23만9천원, 만도기 헤드와 페이스 클리닝 브러시 헤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 키 13만9천원 모두 **필립스**.



오래된 PC를 빛의 속도로 업그레이드하는 데이터 저장 장치인 SSD 840 EVO. 120GB 10만원대, 1TB 80만원대 **삼성전자**.



화이트부터 레몬, 그린, 블루, 핑크 등 총 다섯 가지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아이폰 5C. 원하는 메시지를 레이저로 추가하거나 특별한 산을 표지를 제공하는 온라인 스토어 전용 서비스를 놓치지 마세요. 16GB 75만원 **애플 코리아**.



감각적인 레드 컬러가 돋보이는 새로운 바이오 레드 에디션 26만원대 **소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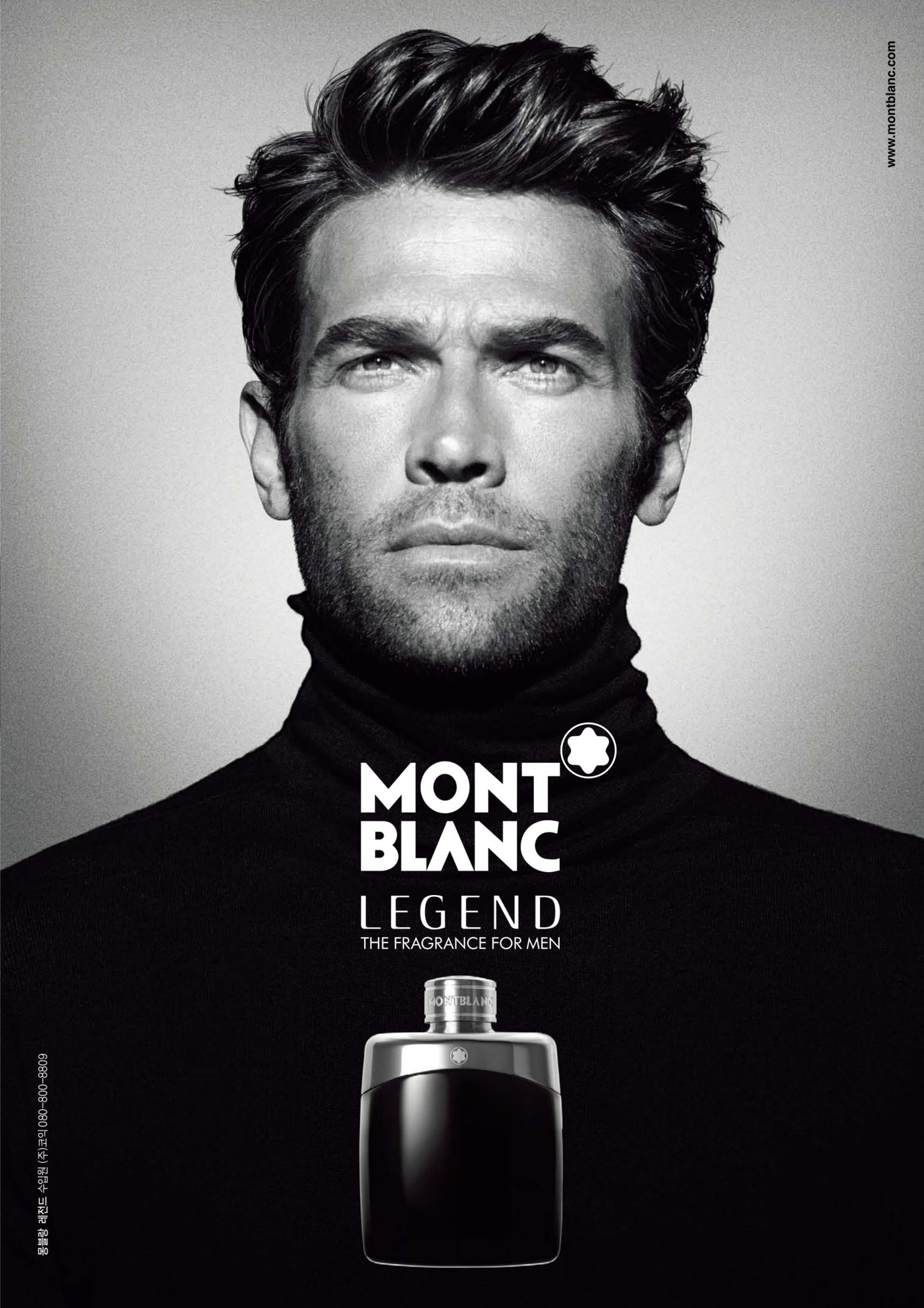


크리스마스 트리에 생동감을 더해줄 말 모양의 가죽 오너먼트 302만원대 **에르메스**.

에르메스 02-544-7722 필립스 02-709-1200
발렌타인 02-3466-5700 뱅앤올룹슨 02-518-1380
더 글렌리벳 02-549-3130 꽃조이 타이틀리스트 02-3014-3800
소니 1588-0911 애플 코리아 080-330-8877
취슬러 080-400-4100 삼성전자 1588-3366 캐논 1588-8133

에디터 이재진

몽블랑 레전드 수면원 (주)코호 080-800-8809



MONTBLANC
LEGEND
THE FRAGRANCE FOR MEN



(왼쪽부터) 로즈 커팅의 최상급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여성스러운 퓨어 그랜스 네크리스 1백50만원대, 링 1백30만원대, 다이아몬드와 스티어를 장식해 모던하고 와일드한 느낌의 체티 플렌트 네크리스와 링 각 2백60만원대 모두 **타사키**.



(왼쪽부터) 어린 핑크빛이 감도는 아코아 진주를 알렐로 세팅한 모던한 밸런스 플러스 이어링 2백40만원대, 아코아 진주 위에 달의 차고 이자라짐을 상징 기법으로 정교하게 세팅한 밸런스 이블리스 링 1천7백만원대, 아코아 진주에 블랙 스피넬 핏칭을 매치한 이어링 2백10만원대, 최상급 남양 흑진주에 로드 라이트 가닛 핏칭을 매치해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피인드 리벨리온 이어링 3백30만원대 모두 **타사키**.



romantic Gifts

생명 그 자체인 진주로 빛어낸 유니크한 주얼리의 아름다움은,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게 하고, 앞으로를 약속하기 위한 빛나는 선물이다. 타사키의 로맨틱하고도 모던한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핑크 컬러의 데인저 하트 네크리스 3백60만원대, 화이트 골드 링 양쪽 아코아 진주에 콘 모양으로 멜레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리피인드 리벨리온 링 5백80만원대, 아국작인 식물 모티브에 아코아 진주를 세팅한 데인저 네크리스 4백30만원대, 아코아 진주에 블랙 멜레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리피인드 리벨리온 링 5백80만원대, 남양 흑진주에 로드 라이트 가닛을 세팅한 리피인드 리벨리온 링 4백60만원대 모두 **타사키**.



(가운데부터) 별 모티브 안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펜타스 네크리스 2백40만원대, 초승달 모양의 다이아몬드 펜던트인 나이트 플 네크리스 2백10만원대, 18K 옐로 골드 12가지 탄생석인 가닛, 자수정, 아메리칸,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 루비, 페리도트, 사파이어, 핑크 투르말린, 시트린, 탄자나이트를 각각 세팅한 12가지 스톤의 바스 스톤 참 펜던트 20만원대~40만원대, 별도 판매하는 네크리스 20만원대 모두 **타사키**. 문의 02-3461-5558 에디터 **배미진**

알아보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가치 Audi A8



Audi A8 Experience



V8 엔진의 강력함을 느낄 수 있는 4.0 TFSI quattro, 4.2 TDI quattro

모두가 주목하는 진보적인 디자인 속에는 이루나 알아볼 수 없는 가치가 숨어있다. 고급스러움과 세련됨이 느껴지는 인테리어, 퍼스트클래스의 감각과 다양한 편의기능을 즐길 수 있는 뒷좌석, 420마력의 힘과 8단 자동 변속기의 다이내믹함을 느낄 수 있는 4.0 TFSI quattro와 350마력 8기통 디젤엔진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4.2 TDI quattro까지. 이것이 내면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에게만 허락된 Audi A8의 진정한 모습이다. www.audi.co.kr

Audi Vorsprung durch Technik

• **아우디 공식 딜러 영업사원 모집**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아우디 전시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전시장	• 동대문 02)2247-2460	• 한강대로 02)790-1468	• 도곡로 02)564-1468	• 청담 02)516-2468	• 서초 02)3488-7777	• 송파 02)412-3468	• 대치 02)555-3468	• 용산 02)797-1468
	• 목동 02)2676-1468	• 분당 서현 03)713-0001	• 분당 수내 03)712-7777	• 일산 03)1422-0000	• 일산 03)1905-1468	• 수원 03)1241-0033	• 천안 04)1567-3111	• 울산 02)797-1468
	• 청주 04)3265-7799	• 부산 남천 05)1611-3844	• 부산 해운대 05)1740-5566	• 울산 05)257-3883	• 대구 05)3744-7070	• 광주 06)2525-8777	• 춘천 03)263-4200	• 인천 04)1567-3111
	• 전주 06)3915-0000	• 창원 05)5245-2233	• 진주 05)924-0000	• 포항 05)4275-0066	• 군산 03)766-7766	• 인천 03)263-4200	• 춘천 03)263-4200	• 인천 04)1567-3111

• **사하스센터**

• 대전 02)555-4834	• 성수 02)3425-0033	• 송파 02)400-2834	• 영등포 02)2672-1468	• 서초 02)597-8255	• 용산 02)798-1468	• 분당 서현 03)715-8255	• 일산 03)1905-1463	• 인천 주안 03)2429-1468	• 인천 구월 03)2465-1462
• 수원 03)634-0033	• 부산 남천 05)1628-0056	• 부산 민락 05)1626-0056	• 울산 05)227-2255	• 대전 04)2862-8302	• 대구 05)3050-8900	• 광주 06)2524-5969	• 전주 06)3905-5500	• 창원 05)5245-0999	• 원주 03)3764-8787

• **차종 및 표준연비**

• 차종명: 아우디 A8 L 4.0 TFSI quattro (배기량: 3,993cc, 공차중량: 2,095kg, 자동8단, 복합연비: 8.1km/l, 도심연비: 6.9km/l, 고속도로연비: 10.3km/l), 등급: 5등급, 복합CO2배출량: 222g/km	• 차종명: 아우디 A8 L 4.2 TDI quattro (배기량: 4,134cc, 공차중량: 2,249kg, 자동8단, 복합연비: 11.6km/l, 도심연비: 10.1km/l, 고속도로연비: 14.1km/l),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73g/km
--	---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행위,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기온등에 따라 실제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주문 사양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Watches & Wonders

Best 8

지난 8월 아시아 최초로 홍콩에서 개최된 스위스 고급 시계 박람회 '워치스 & 원더스', 고급 워치 매출의 40% 이상이 창출되는 아시아 시장에서 선보인 주목할 만한 워치들을 꼽았다. 하이 컴플리케이션 기능을 장착한 여성 워치부터 따라 할 수 없는 심세함을 간직한 주얼리 워치, 세계에서 가장 얇은 무브먼트를 장착한 울트라-씬 워치까지 2013년 첫선을 보인 특별한 워치 컬렉션.

JAEGER-LECOULTRE

예거 르쿨트르 리베르스 코도네 듀에토

매종 탄생 1백80년을 맞은 예거 르쿨트르가 올해 주목할 것은 바로 여성 컬렉션이다. 정교하면서도 슬림하며 우아한 것은 물론 기계식 시계의 매력을 모두 갖춘 여성 컬렉션 리베르스는 뒷면이 세컨드 타임 존을 표시한 듀오 페이스 콘셉트, 혹은 하나의 무브먼트에 앞과 뒤가 전혀 다른 리베르스 듀에토 다이얼을 선보이기도 한다. 예거 르쿨트르가 자랑하는 울트라-씬 모델들은 리베르스의 아르데코 스타일과 조화를 이룬다. 올해 첫선을 보인 하이 주얼리 컬렉션인 리베르스 코도네 듀에토는 1936년 빈티지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모델로, 100% 예거 르쿨트르의 기술력으로 완성한 기계식 칼리버 844를 장착한 마스터피스다.

JAEGER-LECOULTRE

예거 르쿨트르 랑데부 퍼페추얼 캘린더&투르비옹 나이트 앤 데이

여성용 워치에 하이 컴플리케이션을 완벽하게 적용해 올해 새롭게 선보인 랑데부 퍼페추얼 캘린더는 네 자리 숫자로 연도를 표시하는 퍼페추얼 캘린더와 문 페이지를 결합한 시계이다. 워치메이킹 역사상 가장 복잡한 기능 중 하나인 퍼페추얼 캘린더를 지름 37.5mm, 두께 9.53mm의 케이스 안에 섬세하게 구현해 여성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파인 워치메이킹의 진수를 보여주는 랑데부 투르비옹 나이트 앤 데이에도 섬세한 기묘세 패턴을 적용했고, 베젤에 총 2.45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여성미를 극대화했다. 6시 방향에 위치한 투르비옹은 중력에 의한 오차를 줄여주는 하이 컴플리케이션 기술 중 하나로 지난 2009년 크로노메트리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 정확성을 입증했다.

CARTIER

까르띠에 로통드 드 까르띠에 더블 투르비옹 미스터리 워치

까르띠에는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 소재의 핸즈와 무브먼트의 어우레가 없어, 시계의 투명함 몸체에 떠 있는 듯 보이는 미스터리 워치를 1912년 처음 선보인 이래로 다양한 디자인을 출시해 기술적 완성도와 아름다움의 완벽한 공존을 보여 주었다. 올해는 투르비옹 캐리지가 가이 트레인과 전혀 연결되지 않은 듯 보이는 디자인의 로통드 드 까르띠에 더블 투르비옹 미스터리 워치는 매혹적인 시계다. 마치 공중에서 떠다니는 듯 보이는 투르비옹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눈을 의심케 한다.

CARTIER

까르띠에 로통드 드 까르띠에 누금 세공 팬더 워치

기원전 3000년 전기에 시작된 금은 세공 기술 중 하나인 누금 세공 기술을 적용한 예술적인 워치. 수많은 골드 그레인으로 오브제를 장식하는 누금 세공 기술은 금줄을 불에 달구어 작은 알갱이 형태로 만든 후 골드 플레이트에 붙여 모티프에 입체감을 더해 장식하는 방법이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인 정신을 되살려 아름다움에 대한 선조들의 열망을 계승하려는 까르띠에의 의지가 담긴 세심한 공예품, 예술이라 칭할 수 있는 매혹적인 디자인이다. 18K 옐로 골드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고, 다이얼은 22K 옐로 골드 팬더 얼굴을 묘사했다. 단 20개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VAN CLEEF&ARPELS

반클리프 아펠 파보 미스터리우 하이 주얼리 타임피스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시간의 흐름을 묘사하는 반클리프 아펠은 워치에 특별하게 접근한다. 자연, 춤, 쿠티르와 같이 매종이 사랑하는 테마를 시간의 측정과 브랜드 특유의 하이 주얼리에 대한 헌신으로 완성하는 것. 올해는 1950년대부터 아카이브에 등장한 양귀비에서 영감을 받았다. 발물림이 보이지 않는 미스터리 세팅 기법으로 루비와 사파이어를 세팅한 워치는 브로치로도 활용할 수 있다. 벨벳 같은 주얼리의 광채를 살리기 위해 6백 시간 이상 세팅해야 하는데, 골드 레일에 맞게 하나씩 끼울 수 있도록 특별하게 커팅해 진귀한 스톤을 만들어가는 일은 오직 반클리프 아펠만의 기술이다. 잎사귀 하나하나를 따로 밀착한 후 머더오퍼럴 다이얼을 드러낼 수 있도록 꽃의 중심이 오픈되게 고안했다. 핑크 골드의 빛나는 잎사귀, 라운드와 마켓트 컷 다이아몬드 리본의 역동적인 아름다움이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생동감 넘친다.



1 화려한 주얼리 세팅이 돋보이는 예거 르쿨트르 리베르스 코도네 듀에토. 2 예거 르쿨트르 랑데부 투르비옹 나이트 앤 데이와 울트라-씬 투르비옹 퍼페추얼 캘린더. 3, 4 까르띠에 로통드 드 까르띠에 더블 투르비옹 미스터리 워치와 투르비옹 미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5, 6 까르띠에 로통드 드 까르띠에 누금 세공 팬더 워치. 7, 8 반클리프 아펠 파보 미스터리우 하이 주얼리 타임피스에 미스터리 세팅을 하는 장인의 손길. 9, 10 파넬라 라디오미르 8데이즈 GMT 오토 로스의 백 케이스와 일드름. 11 파넬라 라디오미르 다이얼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이미지. 12 피아제 알티플라노 데이트 워치. 13 IWC 빅 파일럿 워치 퍼페추얼 캘린더 어린 왕자 에디션.



PIAGET

피아제 알티플라노 데이트 워치

1957년 세계에서 가장 얇은 핸드와인딩 무브먼트 9P를 탄생시키고, 1960년에는 두께 2.3mm의 셀프와인딩 무브먼트인 12P를 선보인 이래 초박형 손목시계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피아제는 최근 10년간 20여 개의 다양한 칼리버를 선보이며 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알티플라노 모델은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1205P의 두께가 3mm에 불과함에도 날짜 표시 기능을 추가해 찬사를 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얇은 오토매틱 데이트 무브먼트의 기록을 세운 것이다. 워치 케이스 두께는 6.36mm로, 무브먼트와 케이스의 두께가 가장 얇은 시계의 기록을 깨며 피아제의 울트라-씬 제조 노하우와 명성을 다시금 입증했다. 절제미를 바탕으로 심플함과 우아함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피아제의 클래식한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디자인으로, 기존 마니아들은 물론 새로운 울트라-씬 워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워치다. 기존 알티플라노 모델에서 볼 수 있는 5시 방향의 스물 세컨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9시 방향의 날짜 창, 피아제 시그니처인 오픈 인디케이터, 간결하게 쓰인 서체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심플하게 어우러진다.

IWC

빅 파일럿 워치 퍼페추얼 캘린더 어린 왕자 에디션

2006년부터 생텍쥐페리의 후손, 자선단체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청년 재단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IWC는 매년 생텍쥐페리 에디션을 발표해왔는데 올해는 전설적인 파일럿이자 모험가였던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 탄생 70주년을 기념해 어린 왕자 에디션을 출시했다. 2009년에는 생텍쥐페리 재단과 캄보디아 도서관을 열었듯 뿐 아니라 이번 에디션의 수익금 일부 역시 국제적인 문맹 퇴치 운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청년 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IWC 최고의 기술과 우아함을 담은 이번 컬렉션은 특히 받은 기술적인 양방향 오토매틱 시스템, 펠라톤 와인딩 시스템을 갖춘 칼리버 51613을 장착해 날짜, 요일, 월은 물론 네 자리 연도 디스플레이, 윤년 까지 계산할 수 있는 퍼페추얼 캘린더, 7일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문 페이지에는 생텍쥐페리가 직접 그려 <어린 왕자>의 표지에 넣은 일러스트에서 영감을 얻은 밤하늘의 모습을 수놓았다. 에디터 배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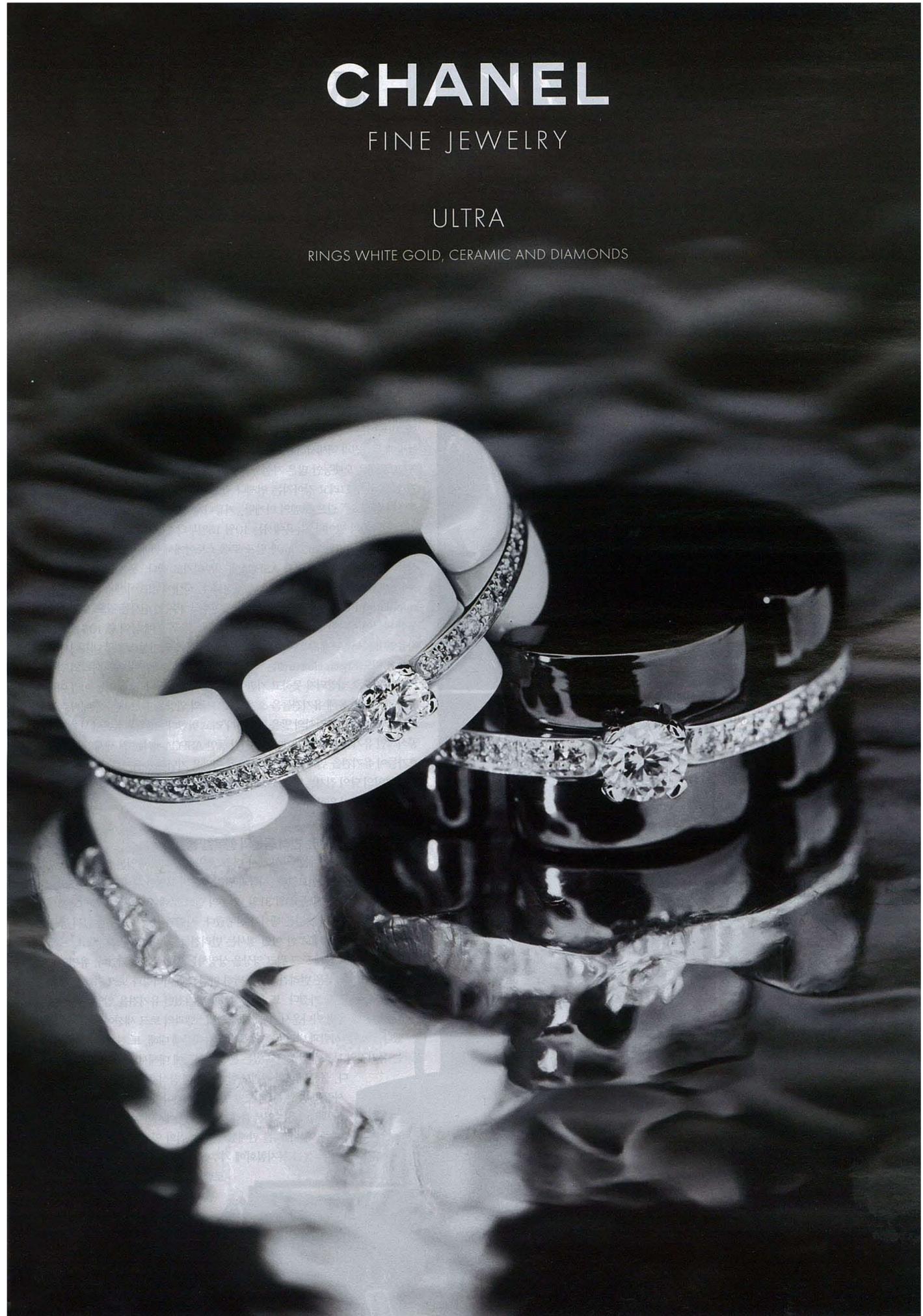


CHANEL

FINE JEWELRY

ULTRA

RINGS WHITE GOLD, CERAMIC AND DIAMONDS



cherish and Love

랄프 로렌이 유기견과 2013 FW 액세서리 컬렉션으로 특별한 런웨이를 선보였다. 동물 보호를 위한 캠페인, '더 도그 워크'와 함께 랄프 로렌 코리아 역시 유기견을 위한 기금을 모금한다. 사람과 동물 그리고 그들 간의 사랑이 다가오는 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만든다.



1 자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후원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랄프 로렌은 이번엔 유기견을 위한 기금 모금에 앞장섰다. 동물을 보호하는 취지로, 뉴욕에서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ralphlauren.com과 랄프 로렌 스토어에서 판매한 '더 도그 워크(The Dog Walk)' 캠페인 제품 판매 금액의 10%를 미국의 유기견 보호 단체에 기증했다. 2, 3 '더 도그 워크(The Dog Walk)' 캠페인은 디지털 영상으로도 제작되어 관심을 모았지만, 유기견들과 뉴욕의 시끄러운 여성들, 그리고 랄프 로렌의 2013 FW 컬렉션이 함께 등장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4 일본의 오모테산도 부티크에서도 '더 도그 워크(The Dog Walk)' 캠페인 이벤트를 열었다. 캠페인을 알리는 사진과 캠페인 제품, 그리고 기금 후원. 5, 6 '더 도그 워크(The Dog Walk)' 캠페인의 디지털 영상에 등장하는 랄프 로렌의 2013 FW 컬렉션의 신제품들.



진정한 럭셔리, 아름다운 기부 캠페인

랄프 로렌이 미국의 유기견 보호 단체인 ASPCA® (The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와 디지털 콜라보레이션으로 특별한 캠페인 '더 도그 워크(The Dog Walk)'를 시작했다. '더 도그 워크'는 2013년 10월 15일에 www.ralphlauren.com에서 공개되었으며, 이는 동물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함과 동시에 랄프 로렌 액세서리만의 럭셔리한 세계를 보여주는 의미 깊은 캠페인이다. '더 도그 워크' 캠페인은 뉴욕에서 진행되는 유기견 분양의 달(Adopt-a-Shelter-Dog Month)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ASPCA의 유기견과 시끄러운 도시 여성이 함께 등장하는 3-D 동영상이다. 뉴욕에서 파리까지, 비커 스트리트, 파리 생제르맹 등 랄프 로렌의 중요한 건물들이 있는 화려한 도시의 모습이 끝없이 펼쳐진다. 우아한 액세서리와 의상으로 아름답게 단장한 랄프 로렌 레이디들은 영상 속에서 사랑스러운 강아지와 여유로운 산책을 즐긴다. 도시의 전반적인 무드는 흑백으로 표현하고 랄프 로렌의 시그니처인 리키백, 반짝이는 주얼리, 사랑스러운 퍼피 스웨터, 우아한 도그 케리어 등은 컬러로 등장해 유기견과 액세서리를 강조한 흥미로운 영상으로 선보였다.

"랄프 로렌은 오랫동안 많은 자선사업에 관심을 가지며 후원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언제나 랄프 로렌의 라이프스타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해왔죠." 랄프 로렌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광고 총괄 대표이사인 테이비드 로렌의 말이다. 뉴욕에서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랄프 로렌은 www.ralphlauren.com과 랄프 로렌 스토어에서 판매한 'The Dog Walk' 상품의 판매 금액 중 10%를 ASPCA에 기부하기로 했다. 동영상에 등장한 모든 아이템은 '더 도그 워크' 상품으로 선정된다. 국내에서도 이번에 새로 론칭한 ralphlauren.co.kr 사이트에서 10월 15일부터 2주간, 신사동 랄프 로렌 서울 도산파크에서는 한 달간 판매된 '더 도그 워크' 상품의 판매 금액 중 10%를 동물 자유연대(KAWA)에 기부한다. ASPCA의 마케팅 & 라이선스 총괄 대표이사 엘리샤 하워드(Elysia Howard)는 "지금도 사랑스러운 3백만~4백만 마리의 강아지가 가정으로 입양되지 못하고 기판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캠페인을 통해 유기견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입양을 홍보하는 데 애써준 랄프 로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라고 밝혔다. 10월은 뉴욕에서 지정한 공식적인 유기견 분양의 달이다. 이 기간 동안 ASPCA에서는 전 세계의 동물 애호가들이 유기견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달을 기념하고 돕기를 강조한다. 유기견 분양의 달의 취지는 20~30%밖에 입양되지 못하는 유기견의 안타까운 처지에 관심을 가지기 위함이다.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반려 동물의 행복한 생활

랄프 로렌이 유기견을 위한 자선 행사 '더 도그 워크'를 기념해 일본 오모테산도 부티크에서도 이벤트를 선보였다. 사람과 반려 동물의 특별한 유대 관계가 동반인, 따뜻한 순간이었다. 지난 10월 31일, 일본의 랄프 로렌 오모테산도 부티크에서 이를 서포트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진행됐다.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반려 동물의 행복한 생활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반려견들을 부티크에 초대하고, 프레스, 셀러브리티와 함께 '더 도그 워크' 영상을 상영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유명인들과 함께 부티크를 찾은 반려견들은 특별히 마련된 케이터링과 도그 카페를 자유롭게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 보호 시설에 맡겨졌던 유기견을 입양한 경험이 있는 일본의 유명 아나운서, 다키가와 크리스텔과의 토크 세션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녀는 사람과 반려 동물의 특별한 유대감에 대해, 또 현재 버려지고 있는 유기견의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론 그녀의 예견도 함께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더 도그 워크'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오모테산도 매장에서는 일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볼 수 있는 핸드백과 가죽 액세서리를 판매했으며, 수입의 일부는 공공 사단법인인 '일본 동물 복지협회'에 기부했다. 그뿐 아니라, 디자이너 랄프 로렌의 부인이자 그의 뮤즈인 리키 로렌의 이름을 붙인 아이콘 백인 리키백 컬렉션의 '소프트 리키 백' 일본 리미티드 에디션 컬러의 선착순 오더 역시 함께 진행되었다.

crystal Holiday

마음껏 화려해져도 좋은 홀리데이 시즌. 다채로운 디자인과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찬 스와로브스키의 기프트 컬렉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눈부신 크리스탈 케링이 돋보이는 트리와 눈사람 오브제 각 18만5천원, 12만원. 드림형 네크리스와 초겨울 네크리스 각 33만원, 37만원.

십자가 모티브를 로맨틱하게 해석한 로이와 줄리엣 네크리스. 큰 펜던트 23만원, 작은 펜던트 11만원.

블랙과 크리스탈 스톤의 세련된 컬러 매칭이 돋보이는 카타린 브로치 21만5천원.

물방울 형태의 컬러 스톤 네크리스 23만원.

사랑스러운 하트 모티브 네크리스 23만원.

밴드에 새겨진 크리스탈 장신구로 화려하게 완성한 엘리스 미니 워치 19만원.

서로 다른 컬러 스톤이 공인 느낌을 주는 드림 이어링 1만5천원.

크리스탈 스톤과 스톤의 매치가 인상적인 브레일링 18만5천원.

나뭇잎 모티브 네크리스와 이어링 각 45만원, 21만5천원.

다양한 형태의 크리스탈 스톤으로 광채를 극대화한 네크리스, 27만원.

모던한 느낌을 주는 세인 모티브 브레일링 35만원.

컬러 스톤을 감싸고 있는 미세한 크리스탈로 반짝임을 더한 하트 세이프 이어링 13만원.

포도송이를 연상시키는 형태의 드림 이어링 15만5천원.

기쁜 마음을 가득 담는 볼트링 링 28만원.

심플한 사각형 골드 이어링 15만5천원. 문의 1661-9060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일창에 형광색으로 포인트를 더한 컨버스 69라인 시몬스 by 무이, 정, 흰색, 자주색 등 세 가지 컬러를 멋스럽게 매치한 스니커즈 1백15만 원 크리스 반 아세 by 쿤, 슬림한 라인과 매끈한 가죽이 아우러진 하이톱 스니커즈, 레드 컬러로 확실한 포인트를 다, 83만 원 생 로랑, 발목 부분에 토끼털을 대 보온성을 높인 하이톱 스니커즈 1백28만 원 에디 지노티, 블랙 & 화이트의 모던한 컬러 조합이 특징인 하이톱 스니커즈, 울업 데님과 매치하면 더욱 멋지다, 가자카탈리 by 분다삼 맨, 레오파드 패턴과 브랜드를 상징하는 별무늬가 눈에 는 스니커즈, 살짝 은 듯 반티지한 느낌이 더 멋스럽게 느껴진다, 66천 원 굿 굿 by 한 스타일, 강렬한 파이론 패턴 프린트 하이톱 스니커즈, 고해 보인다고 느낄 수 있지만 데님이나 정장 팬츠 등 외로 다양한 룩에 잘 어울린다, 2백57만 원 크리스찬 루부탱, 발목 부분을 밴딩 처리해 쉽게 신기 좋은 카무플라주 프린트 스니커즈 80만 원 데 루이 비통, 에디터 아메진

루이 비통 02-3432-1854 쿤 02-548-4504 생 로랑 02-3438-7627 주세베 지노티 02-543-1937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한 스타일 02-517-4789 무이 02-3446-8074 분다삼 맨 02-3444-3300



get it Sneakers

캐주얼 룩에도 남다른 마침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멋진 남자들의 관심이 프리미엄 스니커즈 브랜드로 향하고 있다. 고급스러운 소재, 과감한 컬러 매치, 흔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신었을 때 잔기를 발휘하는 이 특별한 스니커즈에 지갑을 열 이유, 충분하지 않은가.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스타일링: 박건우



UGG®
australia

feels like nothing else

문의 02.3445.7712
UGGAUSTRALIA.COM

classy Rider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의 상당수가 말과 승마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에르메스는 최고급 마구용품들을 만드는 브랜드로 시작했으며, 구찌의 창립자 역시 피렌체 지방에서 가죽 승마 제품을 생산하며 이름을 알렸다. 예로부터 승마가 로열 패밀리들이 즐기는 귀족 문화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명품 브랜드와 승마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승마의 역사에 그 근간을 두고 있는, 말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최고급 소가죽 소재의 말안장 99만9000원
 카탈루냐 토스카나, 영국 왕실의 승마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클래식 재킷 99만원 바버, 양가죽과 스웨이드 소재가 조화를 이루는 승마 모자 29만 원대 에르메스, 승마용품의 2개의 광과 빛깔 문양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홀스빗 로퍼 79만원 구찌, 탄탄하고 부드러운 소가죽 소재의 말 부츠 57만원 카탈루냐 토스카나, 버클 벨트 장식이 럭셔리한 리딩 부츠 3백만원대 에르메스, 승마가죽으로 트림한 캐시미어 장갑 2백만원대 에르메스, 말안장 양쪽에 달린 스티랩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소가죽 벨트 1백만원대 말프 로렌, 스텝 버클 장식과 다양한 패턴이 멋스러운 캔버스 슬리퍼, 18x23cm, 1백만원대 말프 로렌, 승마 부츠에서 영감을 받은 클래식한 벨시 부츠 1백만원대 토즈, 에디터 권유진

에르메스 02-544-7722 구찌 1577-1921 말프 로렌 02-6004-0133
 토즈 02-3438-6008 카탈루냐 토스카나 02-3467-8842 바버 02-6905-3603



MOOSE KNUCKLES 

공식 수입원 (주)starlux www.starlux.co.kr
 갤러리아 WEST 2F 02.6905.3887 / 신세계 강남 3F 02.3479.6269 / 신세계 본점 본관 5F 02.310.1746
www.facebook.com/mooseknuckleskorea



Birch Hill

HAVE A BETTER NATURE

BIRCH HILL CONDOMINIUM & GOLF CLUB

by YongPyong Resort

어깨 라인을 부각한 구조적인 실루엣의 코트, 레이스업 슈즈 모두 보테가 베네타, 파리 누벨라그 컬렉션 이어링과 링 모두 까르띠에.

Grace in Motion

보디라인을 타고 흐르는 여성스러운 실루엣과 고전적인 레이디라이크 룩, 구조적인 형태의 아우터. 내추럴한 아름다움이 사랑스러운 배우 김현주가 펼치는 우아한 순간. *photographed by zoo yong gyun*

블랙 니트 톱, 지퍼 장식 스트라이프 트윈드 톱과 스커트, 벨트 모두 프라다, 파리 누벨라그 컬렉션 링 까르띠에, 블랙 부티 보테가 베네타.





네크라인이 깊게 파인 퍼플 드레스 구찌, 화이트 골드 토크네 크리스와 링 모두 사넬 화인 주얼리.

부드러운 크림색 코트와 원피스 모두 프로엔자 슬러. 핑크 골드 밴드 베를리 링과 오픈 밴드 앙 끝에 네 인 클로버 모티브를 매치한 메직 일함브라 비트윈 더 핑거 링 모두 반클리프 아펠.





화이트 톱과 팬츠, 울과 모피를 믹스한 핫핑크 컬러 아우터 모두 **렌디**. 화이트 머더오브말을 세팅한 매직 알함브라 중 네크리스 **반클리프 아펠**, 오른손의 벨런스 이클립스 링과 왼손의 데인저링 모두 **타사키**.

비대칭 커팅 체크무늬 톱과 하운즈투스 체크 스커트 모두 **디올**. 니하이 가죽 부츠 **스튜디오 와이츠먼**, 빈티지 핀던트 체인 **네크리스 보테가 베네타**.





케이프 코트, 화이트 셔츠 모두 플로에, 가죽 스커트 바네사 브루노, 로마숫자에서 영감을 얻은 아틀라스 컬렉션 방글 모두 티파니.

블랙 니트 카디건, 화려한 비즈 장식 원피스, 벨트 모두 프라다.



헤어 권영은
메이크업 전미연
스타일리스트 김누리
캐스팅 디렉터 안상미
에디터 배미진, 이예진

티파니 02-547-9488
타사키 02-3461-5558
구찌 1577-1921
프라다 02-3218-5331
갈로에 02-6905-3670
렌디 02-2056-9023
디올 02-513-3232
까르띠에 1566-7277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3
프로엔자 슬러 02-310-1814
바네사 브루노 02-3443-4986
반클리프 아펠 02-3440-5660
샤넬 화인 주얼리 023442-0962
스튜어트 와이츠먼 02-546-0955

* 본 화보에 나온 제품의 상세한 가격 정보는 <스타일 조션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tylechosun.com



the glorious Journey

하이 주얼리의 세계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상을 초월하곤 한다.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그 한계에 도전하는 장인 정신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창작품이라 할 수 있는 하이 주얼리를 탄생시켰다. 하이 주얼리의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을 넘어 그 가치가 더해짐을 까르띠에 트레이디션이 여실히 증명해준다. 보석에서 보물로, 까르띠에의 그 위대한 시간 여행.

홍콩, 까르띠에의 유니크함을 기념하다

까르띠에는 두 번째로 열린 <유니크 까르띠에(Unique Cartier)> 전시회를 통해 까르띠에만의 특별한 유산과 대담한 모더니티를 공개했다. 지난 11월 7~9일 홍콩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까르띠에에 관한 탁월하고 유니크한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까르띠에의 고객은 '주얼리의 왕, 왕의 주얼리'의 전설에서 1백66년의 전통을 발견하고, 현대적인 작품의 화려함을 즐겼으며, 까르띠에 전문가들과 함께 오프 주얼리의 정신적 고향으로 사적인 회고 여행을 떠났다. '유니크함'이란 단어는 까르띠에와 완벽하게 어울린다. 주얼리의 왕으로서 까르띠에의 명성은 독보적이며, 창조성과 장인 정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길라드와 푸미 프루티, 기하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스타일, 플라워와 에니멜을 망라하는 최고의 스타일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시대를 선도했다. 까르띠에의 독특한 작품, 주얼, 주얼 위치, 예술적인 소품은 그야말로 '유니크하다'. <유니크 까르띠에>는 까르띠에의 전설을 까르띠에 전통(Cartier Tradition), 현대(Contemporary), 주문 제작(Bespoke)이라는 3개의 중요한 장르로 구성되었다. 최고의 작업실의 고품격이자 아이비브가 보관되어 있는 까르띠에의 유명한 파리 부티크인 뤼 드 라 페 13번지의 이미지를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었다. 관람객은 뤼 드 라 페 13번지의 파사드를 재현한 공간과 나선형 계단의 이미지를 지나 빛나는 쇼케이스 옆으로 나란히 연결된 3개의 접점실이 있는 장방형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또 주얼리나 파리에서 온 전문가와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 위해 사적인 공간에 잠시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1 버드 온 네스트(Birds on Nest) 브로치(Cartier London, 1958). 보석에는 오벌 컷의 시트린 쿼츠를, 머리에는 옐로 골드 사용한 세 20리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루비 눈과 정교하게 홈이 파인 골드 꼬리 등으로 완성해, 까르띠에 특유의 역동적인 풍치를 고스란히 고체로 표현했다. 2 아프리카 테마의 미국적이고 화려한 네크리스, 쿠션형 옐로컷 컬러 투르말린, 카보숑 컷 황수정, 만다린 가넷 비즈, 브라운 다이아몬드 비즈 등으로 일출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3 올레티늄, 진주,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네크리스(Cartier Paris, 1906). 다이아몬드와 꽃이 화오의 차는 듯한 모습이 특징이다. 4 올레티늄, 옐로 & 핑크 골드, 다이아몬드가 어우러진 여성용 육각형 손목시계 Cartier Paris, 1917. 매우 여성스러운 작품으로, 화려하고 고귀한 스타일을 구현함과 동시에 까르띠에 시계 역사의 발자취를 보여준다. 5 오닉스와 다이아몬드가 멋진 조화를 이루는 일목일 줄무늬 브레이슬릿. 6 홍콩의 만다린 오리엔탈에서 열린 <유니크 까르띠에(Unique Cartier)> 전시회 공간. 팬다가 계단을 올라가는 홀로그램 영상을 지닌 1면 전황과 현대, 주문 제작 등 3개의 주제로 나뉜 까르띠에 트레이디션 하이 주얼리들이 전시되어 있다. 7 보석의 가치는 영원함과 지속성에서 비롯된다. 까르띠에 트레이디션이 그것을 여성화시켜 보여주고, 힘들지만 가치 있고 아름다운 작업이다. 보석은 시대를 반영하는 유산이자 문화다. '피에르 레네르(Pierre Rainero, 까르띠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영광스러운 과거와 창조적인 현재를 잇는 시간 여행

까르띠에 전통에서는 18K 화이트 골드와 플래티넘에 43개의 라운드 오리엔탈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한 줄의 네크리스가 빛났다. 진정한 보물이라 할 수 있는, 이토록 밝고 화려하게 빛나는 천연 진주 네크리스를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19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네크리스는 플로럴 모티브에 대한 까르띠에의 열정을 반영한다. 목둘레를 장식한 아름다운 등장미 컬덴트, 섬세한 파베 세팅 플라워와 자연의 풍성함을 지향하는 꽃잎과 나뭇잎으로 장식한 네크리스 위에 플래티넘, 옐로 골드, 마름모꼴 에메랄드, 울드 유라피언 컷 다이아몬드가 섬세하게 어우러져 있다. 과거의 화려함에서부터 현재의 경이로움에 이르기까지, 까르띠에 오디세이 컬렉션의 감각적이고 새로운 주얼리들은 이국적인 감성을 전달한다. 석영과 골든 토포즈 같은 따뜻한 스톤, 태양과 땅이 쏟아내는 컬러들 사이로 인도와 중국을 지나 아프리카를 향해 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현대를 테마로 한 공간에서는 오닉스와 다이아몬드로 된 화려한 브레이슬릿을 선보였다. 이 작품의 그래픽적인 부정형의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 6백81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아카이브의 1902년 머리 장식에서 영감을 얻은 비밀의 위치에 세팅한 핑크와 옐로 사파이어는 마치 다이아몬드의 파도 속에 떠 있는 듯했다. 현대를 테마로 한 공간에는 풍부한 영감을 지닌 1930년대 하이 주얼리 디렉터이자 주얼 팬타를 대표하는 잔 투상을 기념하기 위해 뤼 드 라 페 13번지를 모델로 한 살롱을 만들었다. 까르띠에 주얼리는 1백50년 이상 된 보기 드문 테크닉을 사용하며 원석의 품질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런 브랜드답게 <유니크 까르띠에>에서는 완벽한 아름다움과 숨 막히는 강렬함을 지닌 최상급 원석을 전시했다. 깊이 있는 장미빛을 발하는 29.59캐럿의 앤터크 쿠션 컷 바마산 루비와 화려한 쿠션 컷 스톤인 3.02캐럿의 퍼플 핑크 레디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유색 다이아몬드들은 세계에서 가장 귀한 원석을 구해내는 까르띠에의 전문성을 입증했다. 이러한 놀라운 보석들은 주문 제작 구역에서 나만의 까르띠에 작품을 위한 드라마틱한 베이스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우아한 주문 제작 살롱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의 전문적인 스케치를 시작으로, 자신이 꿈꿔온 주얼이 전문가의 인도하에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과거의 전설적인 작품과 마찬가지로 파리의 작업실에서 공들여 제작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까르띠에는 유니크함에 도달하는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뤼 드 라 페 13번지는 까르띠에의 절대적인 주소이자 장소가 되었다. 이곳에서 여러 보석들이 만나고, 스타일이 탄생하고, 역사가 이루어졌다. <유니크 까르띠에> 전시회는 메종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으며, 까르띠에의 정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Sweet winter

촉감이 부드러운 터틀넥과 앙고라 니트, 감각적인 니트 카디건은 자금이 계절에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다. 세련된 실루엣과 모던한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량방 컬렉션에서 2013 F/W 니트 웨어와 아우터, 스타일에 방점을 찍어줄 액세서리를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이거나 웨어를 꼽으려면 단연 니트일 것이다. 여름과 겨울 소재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다고 하면 '살벌한 이맘때'말로 니트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되는 시즌이 참 좋거나, 옷이 굵거나 얇거나 할 것 없이 특유의 이뉘고 포근한 느낌은 물론 스커트와 팬츠 등 어떤 아이템을 매치하느냐에 따라 스타일링 방법이 무한대로 늘어나니 말이다. 게다가 완성도 높은 니트 웨어는 별다른 장식이나 레이어링이 필요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존재감을 발휘하지 않다가, 매 시즌 모던한 실루엣과 컬러, 트렌디한 타임을 기미한 세련된 패턴 세트를 선보여온 량방 컬렉션에서 2013 F/W 시즌을 맞아 니트 웨어를 다양하게 확대했다. 차분하고 클래식한 블랙, 카키 컬러를 중심으로 두 가지 이상의 실을 엮어 미묘한 컬러 배색이션을 주거나 대담한 프린트, 앙고라, 모헤어, 울 등 다양한 소재의 활용이 두드러진 것. 특히 이번 시즌엔 낙후되면서도 볼륨감 넘치는 오버사이즈 실루엣을 강조했다. 세련된 록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론에 따라 상체는 풍성하고, 하체는 슬림하게 매치하는 시스로 록에 강약을 더하자. 스커트 진도 좋지만 소재의 대비가 극명하게 느껴지는 레이스나 실크 소재의 고급스러운 펜슬 스커트를 매치하는 것이 더 우아하고 세련돼 보인다. 여기에 에이프릴 프린트의 울대백이나 클라치 백, 롱부츠를 걸으면 단연 감각적인 겨울철 아웃핏 완성. 문의 02-3438-6260 메타 이베인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리엔탈 진주와 풍성한 어우러진 장식 덕분에 한피에로 곱씹히는 아우터 3백25만원, 아우터 안에 입은 은은한 색감의 니트 웨어 59만5천원, 완성도 높은 화려한 카스텔라 주얼리 44만5천원, 세련된 카키 컬러가 포근한 느낌을 주는 앙고라 스웨터 76만5천원, 볼륨감 있는 파도 프린트를 입힌 채인 핸드백 30X23cm, 1백25만원, 슬림한 실루엣의 스트라이프 터틀넥 64만5천원, 블루와 리본을 미묘하게 섞은 듯 톤온톤 배색이 특징인 터틀넥 59만5천원, 7가지 계열의 다양한 실을 엮어 감각적으로 완성한 롱 니트 카디건 69만5천원, 약어 프린트를 입힌 앙고라 소재의 롱부츠 1백55만원, 레오파드 패턴 숏컷 클라치 백 20X15cm, 89만5천원.





블록버스터 메이크업 세트
매년 연말에만 한정으로 출시하는 에스티 로더의 특별한 시그니처 메이크업 세트. 유행을 타지 않는 아이섀도, 블러셔, 립스틱, 네일 등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과 레드 트래블 백, 골드 미니 파우저를 함께 구성했다. 14만5천원대.

perfect Present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앉아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며 주고받는 선물이 매년 설레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건, 선물을 통해 상대방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일 터. 에스티 로더는 이번 홀리데이 시즌을 맞이해 세련되고 트렌디한 메이크업 세트와 우아하고 로맨틱한 향수 세트까지, 여심을 뒤흔들 매력적인 홀리데이 세트 컬렉션을 선보인다.



골드 클라치 백 메이크업 세트
사랑스러운 파스텔 톤의 메이크업 토크를 완성해줄 어섯 가지 컬러의 아이섀도 콤팩트, 립스틱, 아이브랜들, 마스크라 등 트렌디하고 매력적인 메이크업 제품과 메탈 골드 클라치 백이 돋보이는 홀리데이 세트. 7만15천원대.



플레이저 향수 펜슬 세트
베스트셀러 향수인 플레이저 향수를 펜슬 타입으로 만들어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인 교체 향수 3종 세트. 썩지 않는 비닐주머니는 펜슬형으로 인해 어디서나 손쉽게 플레이저의 향을 즐길 수 있다. 4만15천원대.



아이 메이크업 세트
각종 연말 모임, 파티에서 번쩍 없이 완벽한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더블 웨어 아이리너, 마스크라와 그윽한 눈매를 연출할 브라운 계열 아이섀도도 구성했다. 골드도트 무늬 파우저는 클라치 백으로도 손색이 없다. 5만15천원대.



뷰티풀 향수 세트
수선 가지 꽃을 따듯한 무드와 스파이스로 감싼 듯 로맨틱한 향기가 돋보이는 뷰티풀 오드 퍼퓸 홀리데이 세트. 뷰티풀 오드 퍼퓸 스프레이 75ml와 미니 뷰티풀 향수, 보타모션과 사워 드롭이 한 세트다. 10만1천원대.



네일 래커 세트
손끝까지 완벽한 그대를 위한 미니 네일 래커 컬렉션. 화려한 연말 파티 룩에 어울리는 빈퍼지는 네 가지 컬러로, 화이트 & 골드도트 케이스와 함께 선보인다. 5만15천원대. 문의 02-3440-2772 에디터 권유진



Oil therapy

겨울철 최고의 보습제를 꼽으라면 단연 페이스 오일이다. 하지만 각종 편견으로 사용하지 망설이고 있다면 메이크업 아티스트 1백 명이 추천하는 '클라랑스 페이스 오일에 주목할 것. 그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결론은?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는 '만능 오일'이라는 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자연이 선사하는 겨울철 최고의 스페셜 케어

여배우들의 '3초 피부 보습법'으로 한때 화제가 되며 트렌드를 선도한 페이스 오일. 오일이 피부 보습에 좋다는 것은 일어도 선풍 손이 가지 않는 건, 끈적이는 질감이 적음이 안 되는 이유도 한몫하지만 무엇보다 오일이 모공을 막고 트러블을 유발할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의 한국 여성들은 무조건 '오일-프리(oil-free)' 화장품만 고집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나치게 매트한 제품만 사용하면 습관은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깨뜨려 오히려 화제가 될 수 있다. 오일, 즉 피지는 수분 증발을 막고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피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최전방의 보호막이다. 그 때문에 어떤 피부 타입에 어떤 오일이 필요하느냐가 중요하지 오일 함유 여부를 따지는 것은 그리 현명한 화장품 선택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오일을 사용해야 할까? 화장품에 사용하는 오일은 크게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오일로 나뉜다. 이중 동물성 오일은 안전성 논란이 있고, 광물성 오일은 분자 구조가 모공을 막아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반면 식물성 오일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입자가 매우 작고 피부 세포와의 친화력이 높아 모공을 막지 않는 것이 장점. 또 사람의 피지에 가까운 피지 분비를 컨트롤하고 호르몬 피부 컨디션을 다룬다. 단, 순도가 높은 천연 에센셜 오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인데, 입자가 매우 작은 순수 식물성 오일만이 끈적임 없이 피부에 빠르게 흡수된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오일을 추천한다면, 단연 클라랑스의 '페이스 트리트먼트 오일'이다. 오일 카테고리에서 수년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브랜드의 제품인 만큼 좋은 성분과 뛰어난 효과를 보장한다. 이는 100% 식물 추출 오일만 담아 피부에 촉촉함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피지 분비를 정상화하는 것이 특징. 더욱 좋은 점은 수분을 공급해 피부가 탈수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사실. 또 번들거리거나 끈적임이 없어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다.

1백 명의 메이크업 전문가가 선택한 페이스 오일

클라랑스 페이스 오일의 가장 큰 장점은 '촉촉함'이다. 오일이 끈적이지 않고 촉촉할 수 있다는 점에 한 번, 보드라운을 남긴 채 빠르게 흡수되는 가벼운 텍스처에 다시 한 번 놀란 것이 사실. '촉촉'이라는 스킨케어 제품은 모두 써봤다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역시 클라랑스 페이스 오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국내 메이크업 아티스트 1백 명의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9명이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 '피부 상태에 맞게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주는 똑똑한 오일'이요. ('장생물 인스피레이션 손주희 원장), '가벼운 텍스처로 자극 없이 빠르게 흡수되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이다. ('순수' 수경 원장) 이처럼 한번 사용해본 사람은 오일의 매력에 푹 빠지게 하는 클라랑스의 페이스 오일은 그 활용범만 해도 무궁무진하다. 토너 후 오일 하나만 버려도 충분한 보습력을 발휘하지만, 피부 속까지 수분을 꽉 채운 듯한 촉촉함을 원한다면 수분 크림에 두세 방울 섞어 사용해보자. 피부가 부쩍 촉촉하고 거칠어졌다면 기초 케어 마지막 단계에 오일을 적당량 도포한 뒤 관자놀이, 턱 밑 등을 지압해보자. 다음 날 아침 보양제 되살아난 피부를 확인할 수 있다. T존의 피지 분비가 왕성한 지성 혹은 복합성 피부라면 손바닥에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체온으로 데운 후 피부를 지그시 누르듯 바르면 되는데, 이때 T존 부위는 가볍게 터치하듯 바르면 번들거림과 건조함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다. 게다가 건조한 입술, 데콜레는 물론 피운데이션에 섞어 바르면 쏘쏘하고 매끄러운 물감 메이크업이 완성된다! 이보다 더 만능일 수 있을까, 클라랑스는 피부 타입에 따른 세 가지 오일을 제안하는데, 수분을 잃고 건조해진 탈수 피부에 생기를 더하는 블루 오일, 민감한 약성 피부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생물 오일', 피지 과잉인 지루한 피부 밸런스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주는 '로터스 오일'로,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하도록. 30ml 6만2천원. 문의 030-542-9052 에디터 권유진

스스로를 전설로 만드는 남자, 이병헌

세월과 함께 늙어 가는 멋스러운 남성미, 자신만의 향기와 진정성으로 성공한 남자의 상징이 바로 배우 이병헌이다. 국내에서의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할리우드에 도전해 세계적인 스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병헌이 어떻게 스스로를 전설로 만들 줄 아는 톱 배우다. 마치 몽블랑 레전드처럼.

elegant
Charisma

자신만의 향기를 갖고 싶은가? 스스로 생각하고 어떤 주장에도 치우치지 않는 유연한 사고를 지닌 남자,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매력 있는 남자가 누구인가. 스스로를 전설로 만드는 남자 이병헌은 몽블랑 레전드 그 자체다. *photographed by kim young jun*

“몽블랑 레전드의 가치는
우아한 카리스마의 내추럴한
남성미를 멋스럽게 풀어내는 것이죠.
이제 몽블랑 레전드는
저 이병헌의 시그너처 향이
되었습니다.” - 배우 이병헌

이병헌의 시그너처 향기, 몽블랑 레전드

상쾌한 베르가모트, 그윽한 화이트 시더, 남성적인 에버빌 향이 어우러진 프레시 우디 푸제르(Fresh Woody Fougere) 향. 정통성과 모던한 매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몽블랑 레전드는 클래식한 수트부터 캐주얼까지 다양한 스타일에 매치된다. 세련미와 남성성을 상징하는 블랙과 실버로 유연한 곡선미를 완성한 보틀은 부드러운 남성의 진정성을 그대로 대변하는 디자인이다. 문의 (주요) 080-800-8809



(왼쪽부터) 몽블랑 레전드 오드 트왈렛, 몽블랑 레전드 애프터 셰이브 로션, 몽블랑 레전드 애프터 셰이브 밤.

GROOMING 3 STEPS

이병헌의 우아한 카리스마. 그 시작은 피부이고, 마지막은 향기이다. 이병헌이 이야기하는 남자의 3단계 그루밍.

STEP 1

**파워풀한 스킨케어,
몽블랑 레전드 애프터 셰이브 로션**

“가장 쉽지만 가장 파워풀한 효과를 주는 스킨케어 노하우는 바로 ‘보습’입니다. 면도 후 화끈거리는 피부에 발라주면 하루 종일 편안하고 촉촉해요.”



모토그라피 (백건주, 이병헌)

세안 또는 면도로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보습 효과를 내는 스프레이 타입의 스킨. 100ml 6만원.

STEP 2

**세월을 잊은 피부를 위하여,
몽블랑 레전드 애프터 셰이브 밤**

“피부에 집중 보습과 영양을 공급하는 단계입니다. 면도 후 피부를 한 번 더 진정시키고, 외부 자극을 막아 세월의 흔적을 케어해줍니다.”



면도와 스트레스로 자극받은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트러블 해결사. 150ml 4만원.

STEP 3

**남자의 마지막 스타일러,
몽블랑 레전드 오드 트왈렛**

“스킨케어 첫 단계부터 시작된 몽블랑 레전드 향은 3 스텝을 거치는 동안 자신만의 은은한 시그너처 향이 됩니다.”



향조각같은 애프터 셰이브 로션, 밤과 함께 사용하면 은은한 진함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다. 30ml 5만7천원, 50ml 8만원, 100ml 11만7천원.

향조각같은 애프터 셰이브 로션, 밤과 함께 사용하면 은은한 진함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다. 30ml 5만7천원, 50ml 8만원, 100ml 11만7천원.

Why serum?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 가면 많은 브랜드들이 세럼을 메인 광고로 내세울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세럼은 전체 라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트리트먼트 제품. 브랜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구의 결실이자 피부 고민의 해결사, 브랜드 대표 세럼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유효 성분의 집약체

세럼을 꼭 발라야 하나고 질문한다면 '그렇다'라고 말할 것이다. 사실 피부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로션, 크림 같은 보습제만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피부 트러블을 본격적으로 케어하고 싶다면 기능성 고농축 세럼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도움이 된다. '에센스'라고도 불리는 '세럼(serum)'의 뜻을 찾아보면 혈액 중 영양 성분이 많은 혈청을 뜻하는데, 에센스 역시 정수, 즉 중심이자 핵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세럼은 다양한 코즈메틱 라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제품이다. 화장품 라인을 크게 스킨-에센스-로션-크림으로 나눈다면 스킨은 세럼의 유효 성분을 잘 흡수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 세럼은 본격적인 트리트먼트 단계, 로션과 크림은 세럼의 효능과 보습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보충 단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많은 브랜드들이 모든 라인의 중심이자 정수이기 때문인 것. 어떤 브랜드에서는 동일 기능성 라인 중 세럼에만 특정 성분을 첨가하기도 하고, 성분 함유량도 월등히 높인다. 또 유효 성분이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텍스처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는데, 보습제에 비해 입자가 작고 점성이 묽으면서 피부에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수분감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첨단 신기술을 적용해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스스로 구석구석 흡수되는 제형까지 개발되고 있는 시점이다. 세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사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피부에 쌓여 있는 각종 피지와 노폐물, 각질은 세럼의 유효 성분이 피부에 침투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 때문에 세럼을 바르기 전 스킨으로 피부에 남아 있는 잔여물을 닦아내거나 세안 시 각질 제거를 해 피땀결을 정돈해주는 것이 좋다. 두세 번에 나눠 피부에 바르는데, 피부에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충분히 두드려주는 것이 포인트다. 다가오는 겨울, 찬바람을 이겨낼 만큼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로 바꾸고 싶다면, 그렇다면 각 브랜드의 연구와 기술의 결정체인 브랜드 대표 세럼을 눈여겨볼 것.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설화수 여인 에센스** 피부 속 밀도 인자를 활성화하는 영실(질레틴 열매) 성분이 피부를 촉촉히 해 피부의 빛, 결, 탄을 개선하는 한방 에센스. 홍삼 사포닌 성분이 주름을 개선하고 옥죽(동굴개) 성분이 피부 탄력과 활력을 증가시킨다. 사용 일주일 후 빛나는 안색을, 2주 후 매끈해진 피부를, 4주 후 탱탱하게 올라붙은 탄력을 선사한다. 50ml 15만 원. 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미픽 타임리프 에스센스 스킨 리뉴얼 세럼 출시 당시 제주 녹차 다원에서 얻은 2천배 농도의 녹차 추출물을 담아 패키지가 된 안티에이징 세럼. 출시 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존보다 2배 많은 5천 송이의 녹차 추출물과 녹차 세포를 함유해 안티에이징 효능과 피부 재생 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그린 티에서 추출한 녹차 스템 셀, 녹차 사포닌, EGCG 등 녹차의 정수 세 가지로 구성된 어드밴스드 타임 리프 에스센스 콤플렉스™를 담아 최적의 피부 환경을 구현한다. 30ml 55만 원. 문의 080-023-5454

클라린스 더블 세럼 클라린스의 27년 안티에이징 역사를 한 병에 집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브랜드의 대표 베스트 세럼. 촉촉한 수분 제형과 부드러운 오일 제형이 2개의 용기로 분리되어 있다가 펌핑 시 유수분 밸런스와 동일한 황금 비율로 섞여 나와 표피와 살아난 듯 피부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린다. 유효 성분 2가지 바나나, 우엉 뿌리 등의 자연 성분이 피부에 반드시 필요한 다섯 가지 필수 기능성 성분, 영양, 산소 공급, 피부 보호, 재생을 모두 충족시킨다. 30ml 12만 원. 문의 080-542-9052

클레드모 보메르 세럼 세 가지 근본 세포에 작용해 피부 뿌리부터 힘을 부여하는 안티에이징 세럼. 표피세포의 근원이 되는 기저세포와 피부 탄력의 원동력인 엘라스틴, 콜라겐, 히알루론산을 만드는 섬유아세포, 피부를 구성하는 근원인 진피 줄기세포를 안정된 상태로 머무르게 해 세포의 활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돕는다. 고농축 영양 성분이 피부 속 깊이 침투해 전달될 수 있도록 셀프 스프레딩 기술을 적용, 세럼을 바른 뒤 마치 그물을 펼쳐듯 손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제형이 퍼져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40ml 35만 원. 문의 02-3438-6032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신크로나이즈드 리카버리 콤플렉스 II 갈색 얼룩은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진 세럼으로, 300이 넘는 긴 세럼 동안 여섯 차례의 리뉴얼을 통해 성분과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6세대 제품이다. 6세대 갈색 얼룩은 크로노텍스 CB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것이 특징. 이는 밤 동안 피부가 스스로 손상된 부분을 개선하는 피부 정화 과정인 카타볼리시스와 피부 개선 과정을 동기화하는 크로노텍스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강력한 재생 기술이다. 그 결과 발바닥 개선되는 피부 턴오버 과정을 최적화해 피부 조기 노화 현상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50ml 15만 원. 문의 02-3440-2772

시세이도 리바이탈 바이오펠 퍼펙션 사이언스 세럼 AAA 화이트닝 화이트닝과 안티에이징 효과를 동시에 선사하는 일명 '골드 세럼'. 일관도인, 비타민 E 유도체로 구성된 바이오펠 에-치아징 시스템이 끈질긴 잔티 생상의 시아놀을 끊고, 독자적인 성분인 시세이도 VP8 성분이 잡티, 칙칙함, 주름, 처짐 등의 주요 피부 노화 고민을 개선한다. 40ml 21만 원. 문의 080-564-7700

달랑 인트랄 레디나스 힐리프 수딩 세럼 민감성 피부 케어로 유명한 브랜드의 명성을 담은 고기능성 진정 세럼. 진정 작용에 탁월한 카마리일 추출물, 피부 수분을 개선하는 폴리사카라이드, 피부 자극을 완화하는 피아너, 호수 추출물을 함유해 쉽게 붉어지거나 트러블이 잦은 민감성 피부를 편안하고 빠르게 진정시킨다. 30ml 12만 원. 문의 02-3440-2706 에디터 권유진

Power lifting

언젠간 노화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노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노화는 얼마든지 늦추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 좋은 송년 모임에서 나이 들었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피부 탄력을 총력을 기울여 노화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 그 해답은? 시세이도의 베스트셀러, '탱탱크림'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의 하

현대에는 아무도 불로초나 젊음을 되살리는 신비로운 샘물을 찾아 헤매지 않는다. 처음으로 흰머리가 나고 입가와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노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지만, 이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 하지만 노화의 정도는 실제 나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연령대가 같은 사람 중에도 5년은 어려 보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노안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나이에 비해 성숙한 사람도 있지 않은가. 즉, 실제 나이보다 환경과 노력이 그 사람의 노화 정도를 좌우한다는 말이다. 피부 노화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처짐과 탄력 저하, 그리고 주름으로 평가된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관리한다면 젊고 탱탱한 피부를 가꾸는 건 시간문제. 시세이도는 자연 노화에는 저항할 수 없지만 젊음을 최대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력 부자 복원 능력을 향상시키는 '바이오퍼포먼스 어드밴스드 슈퍼 리스토어링 크림'을 개발했다. 이는 2010년에 출시한 이후 '탱탱크림'이라는 애칭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시세이도의 베스트셀러 안티에이징 크림. 트리플 다이나믹 리프팅 기술을 적용해 노화가 가속화되면서 도드라지는 처짐, 탄력 저하, 깊은 주름 등 주요 피부 고민을 해결한다. 탄력을 주관하는 진피세포의 활기세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바이오 리뉴얼 콤플렉스' 성분을 배합했으며, 항산화 성분인 크로 에를 일 추출물이 자외선, 건조 등 외적 요인들에 의한 섬유아세포의 산화를 예방한다. 또 고보습 성분인 슈퍼 바이오 하일루론산이 피부 깊숙한 곳까지 수분을 채우고 건강한 피부 사이클을 위해 피부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특징. 초창기의 1세대 바이오퍼포먼스 제품에 비해 업그레이드된 점은 기존 제품이 단순히 피부 탄력과 주름을 집중 관리했다면, 이번 제품은 줄기세포를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법을 통해 피부 처짐과 탄력, 깊은 주름까지 한번에 케어할 수 있다는 것. 수박 겉핥기식의 케어가 아닌 피부 속 세포의 힘을 강화해 근본적으로 탄력 있고 어린 피부로 가꿀 수 있다.

가 의 사이

40대 이상의 여성이라면 노화를 예방하는 단계가 '보안' 이미 진행된 노화 증상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둔다. 시세이도 바이오퍼포먼스 어드밴스드 슈퍼 리스토어링 크림(이하 '탱탱크림')은 40~50대 여성의 고민인 깊은 주름, 처짐, 탄력 저하에 집중적으로 작용하는, 노화 개선을 위한 안티에이징 크림이다. 시세이도는 연말을 맞아 그 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이 크림을 12월 한 달간 75ml의 대용량으로 한정 출시했다. 50ml에 15만 원이던 크림을 75ml의 대용량 사이즈로 17만 원이라는 매력적인 가격에 선보이니 기존 마니아 고객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기존 제품의 배에 가까운 넉넉한 용량이라 얼굴은 물론 목, 데콜리라인에까지 듬뿍 사용할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럽다. 텍스처 개발에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친 만큼 공을 들이는 시세이도의 제품답게 투명한 듯하면서도 끈적하고 묵직한 핑크빛 질감이 돋보인다. 보습 리프팅 크림이 다소 무겁고 리치한 제형으로 데일리 케어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탱탱크림은 첫 느낌은 리치하지만 피부에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며 번들거리지 않고 촉촉해 낮과 밤 케어 모두를 만족시켰다. 보습력이 뛰어난 바르는 즉시 피부가 유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밤에 수면 팩을 하듯 도통하게 발라주면 다음 날 아침 피부에 생기와 윤기가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음까지 편안하게 하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플로럴 부케 향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다. 50ml 15만 원, 75ml 17만 원. 문의 080-564-7700 에디터 권유진



super Surprise!



PC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데이터 저장 장치가 '영특한' 연말 선물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그 누가 예측했을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초고속 저장 장치인 SSD만 있다면 PC는 마치 뇌 성형수술을 받은 듯 180도 달라질 수 있다. 뇌 진화의 종결자라고 일컬어지는 전두엽이 대뇌에만 자리 잡은 게 아니라 뇌 전반을 감싸게 된 것 같은 효과가 다름 아니다. 노트북 PC의 '환골탈태'를 가능케 할, 작고 가벼운 마술 상자 같은 SSD의 매력을 탐구해본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똑똑하고 민첩한 PC 도우미의 등장, 낡은 하드디스크는 가라!

'무어의 법칙', '벡탈프의 법칙', '길더의 법칙'... 디지털 세상에는 마치 공식처럼 여겨져온 소위 '법칙'들이 있는데, 결국 이러한 이론들이 강조하는 공통의 핵심은 첨단 IT 자원은 엄청난 게 빠른 속도로 성능이 좋아질뿐더러 그에 따른 효율의 향상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스팩'을 갖춘 디지털 기기를 고르고 골라 장만했는데도 1~2년만 지나도 짜증을 유발할 정도로 답답하고 느린 듯 느껴지는 이유일 것이다. 가까운 예로 노트북 PC를 들 수 있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비서이자 모바일 오피스,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되는 등 '나만의 소유주'와 같은 존재감을 지닌 노트북 PC는 금세 고물이 되어버리기 일쑤다. 하지만 소모품처럼 전락한 노트북 PC도 특급 도우미를 만나면 마치 '세겟'처럼 변신할 수 있다. 차세대 데이터 저장 장치로 부상하고 있는 SSD가 바로 그 마법사와 같은 '물건'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를 장착한 '지구인급'의 노트북 PC도 초고속 저장 장치인 SSD만 곁들이면 바로 '우주인'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넉넉한 용량을 제공할 뿐 아니라 온갖 PC 작업의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터보 엔진'인 셈이다. 오래된 PC를 끌어안고 답답해하고 있거나 게임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소중한 이를 곁에 두고 있는가? 이처럼 영리한 물건이라면 그야말로 '센스 있는' 연말 선물이 될 듯하다.

소중한 이의 삶에 속도와 흥겨움을 더해주는 영특한 선물

보기에도 얇고 가벼운 SSD는 2.5인치 HDD처럼 작은 크기라 노트북 PC나 데스크톱 PC에 탑재할 수 있다. 그런데 '내살'을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똑똑하다. 특히 완제품 SSD 시장의 1인자인 삼성전자가 아쉽게 내놓은 신제품 'SSD 840 EVO'는 '슈퍼 스피드(Super Speed)'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만큼 정보처리 속도가 발군이다. 840 EVO는 기존 840 시리즈에 비해서도 연속 쓰기 성능이 최대 3배 이상 향상했다고 한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자체 실험에서 대용량 압축 파일을 푸는 데 SSD 노트북은 17초, HDD 노트북은 141.4

초가 걸렸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열고 멀티태스킹을 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고, 무겁고 큰 영상 데이터도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 당연하다. 이리다 보니 이미 입소문이 꽤 났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발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일러스트레이터 장석원은 수년 전 구입한 노트북 속도가 느려 이따금 짜증이 났는데, 삼성 SSD를 사용하고 나서는 일 처리가 한결 원활해졌다고 한다. 뛰어난 안정성도 눈여겨볼 만한 요소다. 권순욱 뮤직비디오 감독은 촬영 영상 등을 작업할 때 지금껏 단 한 번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깊은 신뢰를 보이기도 했다. 설치도 손쉬운 편이다. USB 포트에 꽂고 데이터 마 이그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3단계의 과정만 거치면 HDD의 데이터를 SSD로 옮길 수 있다. 소프트웨어와 운영 체제(OS)까지 모조리 옮길 수 있다니 참으로 편리한 디지털 세상이다. 문의 1588-3366 **에디터 고성연**

내 PC에서 만나는 Super Speed, 삼성 SSD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플래시를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는 우리가 흔히 하드디스크라고 부르는 HDD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데이터 저장 장치로 떠오르고 있다. HDD에 비해 월등하게 빠른 정보처리 속도와 작은 소음, 그리고 안정성을 자랑한다. 예컨대 HDD가 탑재된 노트북 PC는 부팅하는 데 82.5초가 걸리는 반면 삼성 SSD가 장착된 제품의 경우 부팅 시간이 31초라는 자체 실험 결과가 있다. 또 독자 기술인 터보라이프를 적용해 웹 서핑, 문서 작업, 그래픽 작업, PC 게임 등 멀티태스킹 환경을 편리하게 개선한다. 그뿐 아니라 전력 소모가 적어 노트북 PC 배터리 수명을 30분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그동안 비싼 가격과 적은 용량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되지 못했지만, 최근 가격 파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840 EVO 시리즈는 120GB(10만번대부터) 1TB(80만번대)까지 용량이 다양하다.



소용 일러스트레이터 고성연



완벽주의 디자이너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디지털존 디자인팀 팀장 이정민 님(경력 8년)



천의 얼굴을 만드는
분장 디렉터가 경탄했습니다.

예랑 분장프로덕션 대표 이현주 님(경력 4년)



최고 지성의 교수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SD대학 교수 김용선 님(경력 10년)

무엇이 이분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을까요?

inpres X C's

“아마하 골프 클럽에 대한 믿음이 제 스윙의 안정감이고, 아마하 골프 클럽의 경쾌한 타구감이 제 스윙의 자신감입니다.”

SD대학 교수 *김용선*

“저는 이상하게 아마하 브랜드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좋은 장비임에는 틀림없지만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쓰는 시니어채 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시타를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하의 첫인상은 견고하고 탄탄하며 짱짱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툭 쳤을 뿐인데 ‘탕~’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시원하게 공이 뻗어나가더라고요. 그 첫 느낌만으로 아마하로 결정해버렸습니다.”

(주)디지털존 디자인팀 팀장 *이정민*

“드라이버의 경쾌한 타구음은 그 어떤 드라이버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높은 가격임에도 망설임 없이 아마하 C's 드라이버로 결정했고, 첫 번째 라운드에서 롱기스트라는 골프 인생 최초의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언까지 아마하 C's로 교체했고, 스윙에 대한 자신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예랑 분장프로덕션 대표 *이현주*

아마하 C's를 선택한다는 것. 이는 분명 당신에게 최고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SHOWROOM



무스너클

어그 오스트레일리아



이브 살롱



티에리 라스리 for 펜디 아이웨어

에르메스 히로시 스기모토 스킨케어 전시 에르메스에서는 빛과 시간의 효과를 탐구해온 일본 현대 사진가 히로시 스기모토의 국내 개인전 오프닝을 기념하기 위해 그가 선보인 '그림자의 색' 실크 스킨케어 제품 에르메스 도산파크에서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히로시 스기모토는 지난해 에르메스의 '레드 아티스트'의 세 번째 에디션을 탄생시킨 인연이 있다. 문의 02-3015-3251

랑방 컬렉션 홀리데이 기프트 랑방 컬렉션에서 '시세이도 클러치 백'과 '스오로브스키 네크리스'를 홀리데이 기프트 아이템으로 제안한다. 레드와 버건디 컬러를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표현한 벨가죽 소재 클러치 백은 뒷부분이 접힌 플드 형식이라 그림감이 좋으며, 스타드 장식을 더해 트렌디한 느낌이 물씬난다. 움직임 때마다 화려하게 반짝이는 네크리스는 화려한 파티 룩으로 변신시켜줄 유용한 아이템이다. 문의 02-3438-6260

일 비즈웨이 리미티드 에디션 백 일 비즈웨이에서 2013 F/W 겨울 시즌을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백을 선보인다. 빈티지한 옛이 문양을 고급스러운 소재에 부드러운 양털을 트림한 감각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며, 슬더와 토트백 스타일로 선보인다. 신상품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548-2992



랑방 컬렉션



일 비즈웨이



룩스타카 코리아



에르메스

무스너클 스텔링 파카 출시 캐나다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무스너클에서 스텔링 파카를 선보인다. 영양을 담은 긴 길이에 슬림한 라인을 강조했으며, 탈착 가능한 풍성한 폭스 파와 브랜드 고유의 메탈 장식을 더했다. 블랙, 레드, 네이비, 그레이에 코발트 블루 컬러를 새롭게 추가해 총 5가지 컬러로 선보인다. 갤러리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551-7012

어그 오스트레일리아 스토크홀름 컬렉션 어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헤리티지 라인의 '스톡홀름' 컬렉션을 선보인다. 어그 부츠의 장시간 편안 양털의 포근함에 워터프루프 스웨이드로 생활 방수 기능을 더

해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재킷이다. 체온을 따라 열을 제공하는 '필드나 인솔'과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이브 아이웨어' 아웃솔을 사용해 착용감이 편안하다. 문의 02-3440-4518

셀린느 라지 팬텀 셀린느에서 2013 F/W 시즌을 위한 새로운 컬러의 '라지 팬텀' 백을 선보인다.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라지 백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라지 팬텀은 라지에 비해 사이즈가 크고, 양쪽 사이드를 보다 유연한 형태로 완성했다. 그린, 네이비 블루, 블랙, 다크 브라운 등의 컬러를 추가했다. 문의 02-3440-1547

이브 살롱 2013 F/W 컬렉션 프랑스를 대표하는 모피 브랜드 이브 살롱(Yves Salomon)에서 고급스러운

소재와 트렌디한 디자인을 강조한 2013 F/W 모피 컬렉션을 선보인다. 럭셔리 라인 '245 St. 오스레(245 St. Honore)', 클래식 라인 '이브 살롱(Yves Salomon)', 젊은 감성의 메테오(Meteo)', 일리타리 룩을 재해석한 '아미 피(Army Fur)' 등 각기 다른 콘셉트와 개성을 지닌 4개의 라인으로 구성되었다. 국내에서는 멀티숍 무이에서 독점 전매한다. 문의 02-3446-8074

펜디 아이웨어 2015 S/S 선글라스 펜디가 프랑스 출신 디자이너 티에리 라스리(Thierry Lasry)와 함께 2015 S/S 펜디 아이웨어 캡슐 컬렉션을 선보인다. 펜디 하우스의 장인 정신과 혁신성에 티에리 라스리의 미래적인 빈티지 무드를 결합한 클래식비전 아이웨어는 내년 1월부터 제작되어 시발로를 통해 유통할 예정이다. 문의 02-2056-9023

룩스타카 코리아 2014 S/S 아이웨어 프레젠테이션 룩스타카 코리아가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14 S/S 컬렉션을 진행했다. 레이아웃과 올리버 피플스를 비롯해 프리다 아이웨어, 톨레안카비나 아이웨어, 폴 스티스 아이웨어 등 룩스타카가 전하는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의 다양한 아이웨어 컬렉션을 선보였다. 문의 02-501-4436

토즈의 장인 정신이 깃든 사토리얼 플로어

이탈리아의 럭셔리한 감성과 클래식한 패션을 추구해온 토즈는 지난 6월 밀라노에서 브랜드의 '사토리얼 터치(Sartorial Touch)' 정신을 담은 '사토리얼 플로어(Sartorial Floor)'를 새롭게 개설했다. 두 세대를 거쳐 내려온 핸드메이드 기술을 모던하게 발전시킨 '사토리얼 터치'에는 최상의 가죽만을 선별해 가죽 자체의 특성과 컬러를 고급스럽게 살리는 토즈 공방 장인들의 노하우와 기술이 오롯이 담겨 있다. 밀라노 비아 델라 스피가(Via Della Spiga)의 토즈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는 사토리얼 플로어는 토즈의 가치를 이해하는 남성들을 위한 혁신적인 공간.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스토어가 아니라 매장 내에 바(bar)가 준비되어 있어 늦에는 커피를, 자취에는 위스키를 즐기며 패션뿐만 아니라 토즈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토즈 이탈리아의 남성 슈즈 전문가 2명이 상주하며 각자의 취향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제안하고, 제품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돌아서마자 고급 별장의 응접실을 방문한 듯 따뜻하고 인력한 분위기의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는데, 고급스러운 나무 바닥 패턴과 가죽, 소파와 테이블, 스틸 소재의 집기류 등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클래식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토즈의 남성성을 대변하는 듯하다. 밖에서 걸린 컨셉패러리 아트 작품과 빈티지한 오브제는 다양한 토즈 남성 컬렉션과 어울려 특별한 공간 속에 있다는 만족감을 선사하며, 몽크 스트랩, 첼시 부츠, 옥사프 등 다양한 디자인의 핸드메이드 가죽 슈즈와 새로운 터치를 담은 아이코닉한 D백은 세련된 가죽 슈즈 케이스에 전시되어 보는 즐거움까지 선사한다. 오랜 역사를 지닌 토즈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과 노하우, 헤리티지를 느낄 수 있는 사토리얼 플로어에 방문하는 것만으로 남다른 경험일 것이다. 문의 02-3448-8105



몽블랑 레전드 인텐스 출시 몽블랑에서 크리스마스 마냥치는 남성을 위한 향수, '레전드 인텐스'를 선보인다. 베르가모트와 스프라이 어코드의 향으로 시작해 화이트 시더우드와 레드 애플로 부드럽게 이어져 다가 오코 모스, 샌달우드, 통카 빈이 어우러진 깊고 관능적인 향으로 완성되는 우디 계열의 향수다. 문의 080-800-8809

프리다 루나로사 익스트림 프리다에서 새로운 남성 향수 '루나로사 익스트림'을 선보인다. 국제적인 오일 강인 아메리카 캄에서 안료를 얻고 있는 루나로사 팀의 열정과 도전 정신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로, 기존 루나로사의 부드럽고 상쾌한 향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앰버와 바닐라를 강조한 베이스로 완성했다. 문의 02-3443-5050

다울 4가지 홀리데이 꾸뛰르 컬렉션 다울에서 오직 연말에만 만날 수 있는 4가지 홀리데이 꾸뛰르 컬렉션을 제안한다.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멀티-룩 팔레트'를 비롯해 '립 & 내일 팔레트', '아이스도'와 라이너로 구성된 '아이 디자이너 팔레트', 다양한 브러시를 담은 '브러시 세트'를 선보인다. 문의 02-3438-9631

비비안 웨스트우드 몽 부드와 비비안 웨스트우드에서 여성 향수 '몽 부드와'를 선보인다. 프랑스어로 '나의 작은 방'인 뜻의 몽 부드와는 비밀의 방에 숨겨진 만화감과 같이 은밀하면서도 매력적인 콘셉트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선보일 예정이니 그동안 서울에만 매장이 있어 아쉬웠던 이들에게 반겼다. 문의 02-3443-5050

클라린스 12월 얼리 버드 프로모션 클라린스가 11월 20일부터 1백 개 세트 한정판으로 '얼리 버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촉촉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클라린스 페이스 트리트먼트 오일 1+1 세트'와 함께 테스터 제품, 샘플 3종으로 구성했다. 클라린스 내 공식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단독으로 진행한다. www.clarins.co.kr

시세이도 탱탱크림 대용량 사이즈 시세이도에서 성 향수 '루나로사 익스트림'을 선보인다. 국제적인 오일 강인 아메리카 캄에서 안료를 얻고 있는 루나로사 팀의 열정과 도전 정신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로, 기존 루나로사의 부드럽고 상쾌한 향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앰버와 바닐라를 강조한 베이스로 완성했다. 문의 080-564-7700

에스티 로더 2013 홀리데이 세트 컬렉션 에스티 로더는 2013년 홀리데이 시즌을 위해 메이크업, 향수 제품으로 구성된 컬렉션을 선보인다. 클래식하면서도 유쾌한 타지 않는 아이섀도, 블러셔, 립스틱, 림프로스, 네일 등 다양한 풍성한 메이크업 제품을 레드 트래블 백과 골드 미니 파우치에 담아 연말 선물로 완성했다. 문의 02-3440-2772

조 말론 런던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점 팝업 부티크 오픈 조 말론 런던이 11월 29일 부산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에 팝업 부티크를 오픈했다. 오랜 인기를 자랑하는 '이벤트'와 '해택'을 선보일 예정이니 그동안 서울에만 매장이 있어 아쉬웠던 이들에게 반겼다. 문의 02-3440-2750

삼성전자 SSD 840 EVO 론칭 삼성전자가 차세대 데이터 저장 장치로 떠오르는 SSD(Solid State Drive,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대중화를 위해 '840 EVO'를 출시한다. 브랜드의 독자적인 기술인 터보라이프를 적용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에 비해 3배 이상 속도가 빠르고 기계적 자연이나 실패율, 소음이 적어 PC 성능을 극대화한다. 120GB에서 1TB까지 다양한 용량의 제품으로 구성했다. 문의 1588-3366

용평 리조트 콘도미니엄 바치힐

국내 레저 문화를 선도하는 용평 리조트에서 최고급 별장형 콘도미니엄 바치힐을 오픈했다. 용평의 스키 라인을 따라 이어지는 자작나무 숲에 조성한 프라이빗한 숙박 시설로, 미국의 비버크릭에서 영감을 얻어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를 선보인다. 122㎡(37평)부터 251㎡(76평)까지 다양한 형태의 4백50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체의 생체 리듬에 가장 잘 맞는 해발 700m에 위치해 자연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겨울철 스키 시즌에는 전 객실에서 은빛 설원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리조트 주변 환경과 일체화된 느낌을 준다. 뿐만 아니라 콘도 뒤편에는 발왕산의 대자연의 향유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해 넉넉하고 여유로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문의 02-3270-1122



타사키 버스 스톤 탐 타사키에서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버스 스톤 탐을 선보인다. 컬렉션의 이층처럼 각각의 의미를 지닌 열두 달의 탄생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의 경우 스톤의 빛을 극대화하는 커팅 기법을 사용했다. 문의 02-3461-5558

루시에 누 브리앙 컬렉션 루시에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누 브리앙' 컬렉션을 추천한다. 단단하게 묶여 풀리지 않는 매듭을 뜻하는 리본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빈티지한 사랑의 약속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다이아몬드를 총총하게 세팅해 화려함을 강조한 골드와 네크리스로 구성되어, 핑크 골드, 옐로 골드, 플래티넘 골드로 선보인다. 숫자 링과 브러쉬에 따라 교체할 수 있는 뉴 컬러 스트랩은 컬러에 어울려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284-1300

타피니 이블리스 오픈 펜던트 타피니는 12월을 맞아 '이블리스 펜던트'를 제안한다. 타피니 뉴욕 본사 외벽에 설치한 청동 시계를 재해석한 이블리스 컬렉션은 전 세계에 걸친 시간의 여정을 축하한다는 의미가 있어 홀리데이 시즌 선물로도 제격이다. 이번 시즌 새롭게 선보인 오픈 펜던트는 얇고 간결해진 로 마스터를 축으로 다이아몬드를 파헤쳐 세팅해 절제된 화려함을 선사한다. 문의 02-547-9488

스오로브스키 테니스 세트 스오로브스키에서 연말을 맞아 '테니스 세트(Tennis Set)'를 선보인다.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디자인의 네크리스와 클러치 크리스트 아이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말 파티 룩에는 물론 데일리 룩에도 잘 어울린다. 문의 1601-9064

오메가 2013 F/W 크리스마스 컬렉션 영국의 하이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에서 2013 F/W 크리스마스 컬렉션을 제안한다. 루비와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우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에포그리스 엘레강스(Effortless Elegance)', 옐로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링 등으로 스톤의 화려함을 강조한

'플래시 오브 럭서리(Flashes of Luxury)', 리미티드 라인으로 사랑을 속삭이는 듯한 디자인의 '얼티메트 기프트 오브 러브(Ultimate Gift of Love)' 등 특별한 순간을 더욱 아름답게 빛낼 3가지 컬렉션으로 구성했다. 문의 02-2256-6810

펜디 워치 셀라리아 컬렉션 펜디 워치에서 셀라리아 컬렉션의 뉴 컬러 스트랩을 선보인다. 블랙, 블루, 핑크, 베이지 등 기본 컬러에 골드와 옐로우, 레드 컬러 스트랩을 추가해 스타일의 폭을 넓혔다. 숫자 링과 브러쉬에 따라 교체할 수 있는 뉴 컬러 스트랩은 컬러에 어울려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284-1300

오메가 홍콩 코-엑시얼 전시회 오메가가 홍콩 IFC몰에서 <코-엑시얼 전시회>를 개최했다. 오메가의 목격 기술이 담긴 코-엑시얼 무브먼트를 소개하고 이를 탑재한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였으며, 한국 배우로는 지진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배우 지진희는 오메가 뮤직 컬렉션에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MD's Watch'의 보석사와 시계 박스에 시계를 새겨 넣어 특별함을 더했다. 문의 02-3149-9573



JEWEL

그라프

펜디 워치



FASHION

LIFESTYLE